

한국융합인문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와 ‘공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 ▶ 일시 : 2015년 4월 25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304호
- ▶ 주최 :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한국융합인문학회 2015년 춘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 일시 : 2015년 4월 25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 운초우선교육관 304호

제1부 학술대회 |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와 ‘공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14:00-17: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14:10-14:40	주제발표 1	▶ ‘공감’의 재개념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 • 발표 : 박치범 (경인교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김학찬 (극동대)
14:40-14:50	휴 식	
14:50-15:20	주제발표 2	▶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ffectual and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South Korean Older People • 발표 : 박승민 (우송대) • 사회 : 소인호 (청주대) • 토론 : 이소영 (한중대)
15:20-15:30	휴 식	
15:30-16:00	자유발표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설 <태백산맥> • 발표 : 박보영 (극동대) • 사회 : 양윤모 (극동대)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16:00-16:10	휴 식	
16:10-16:40	대학원 세션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 발표 : 김태호 (고려대 대학원) • 사회 : 양윤모 (극동대) • 토론 : 남윤철 (고려대 대학원)
16:40-17:00	종합토론 및 폐회선언	• 회장 : 소인호 (청주대)

제2부 좌담회 [17:00-17:30]

- 좌장 : 회장 소인호

1. 모두 발언_ 회장 소인호

2. 학회활동 보고_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3. 안건_ 회장 소인호 / 국문편집이사 박보영

- 제1호 안건 : 한국연구재단 동향과 학회지 〈한국융합인문학〉 발전방안
- 제2호 안건 : 학회비 납부 효율화 방안
- 제3호 안건 : 기타

4. 마무리 발언_ 회장 소인호

[목 차]

2015년 춘계학술대회 |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와 ‘공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 주제발표 1

‘공감’의 재개념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 7
 ▶ 박치범(경인교대)

■ 주제발표 2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ffectual and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South Korean Older People 35
 ▶ 박승민(우송대)

■ 자유발표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설 〈태백산맥〉 55
 ▶ 박보영(극동대)

■ 대학원 세션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69
 ▶ 김태호(고려대 박사과정)

주제발표

현대사회에서의 '연대'와 '공감'에 대한 융합적 고찰

[주제발표 01]

'공감'의 재개념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

/ 박치범(경인교대)

[주제발표 02]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ffectual and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South
Korean Older People**

/ 박승민(우송대)

‘공감’의 재개념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

박치범**

I. 서론

‘소통(疏通)’, ‘힐링(healing)’ 등과 더불어 ‘공감’은 최근 대중적으로는 물론 학술적으로도 주목받는 용어이다. 본래 문학이나 미술, 음악의 작품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선호를 뜻할 때 널리 사용되었던 이 말은 점차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동일한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난 표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에서 작성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공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인터넷의 기사 스크랩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희망 목록을 가리키는 말에서도 이 단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상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학이나 윤리학, 문학에서는 물론 교육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생물학, 의학 등 다양한 학술적 담론에서도 공감은 꽤나 인기 있는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연구는 공감을 큰 틀로 삼아 인간의 친사회적 행동을 해명하고자 하는 뇌신경과학이나 진화론적 관점에서부터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한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자리한 요인들을 윤리적 행동의 동기로서 설명하려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제러미 리프킨(J. Rifkin)은 《공감의 시대》를 통해 현대사회를 ‘공감의 시대’로 명명하기에 이른다. 리프킨은 “공감이라는 렌즈를 통해……지금까지 감추어 왔던 인간 해석의 풍부하고 새로운 물줄기를 들춰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¹⁾ 공감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어 문명사를 재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문학교육에서의 공감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5)의 제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 경인교대 강사. clqja@hanmail.net

1) 제러미 리프킨(Rifkin, Jeremy),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p.6.

그러나 공감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이것이 과연 현대사회에서 요청되는 가치들을 적절하게 부여받아 통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일상적, 학술적 담론을 막론하여 '공감'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찰 없이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감은 '타자와의 관계(共)'와 '감정(感)'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더불어 이 용어가 제기되어 의미의 변화를 거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서양의 근대 이후 개인과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의 친(親)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밝히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 없이 그것을 자기 '취향'의 표현이나 '대중적 인기'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감정적 표현에 대한 막연한 설명으로서 사용한다면 공감의 의미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의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의 사용은 공감 현상 혹은 행위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결국 이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술적 논의에도 적용된다. 공감의 개념은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들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공감'은 해당 학문 분야나 논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감'이라는 말은 서양의 영어의 'sympathy'나 'empathy'²⁾를 번역한 것인데, 해당 논의에서 'sympathy'와 'empathy' 중 어떤 용어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떤 말로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분야의 관행이나 번역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 차이를 갖는 'sympathy'와 'empathy'가 경우에 따라 '공감', '동감', '동정', '연민' 등으로 제각각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막스 셸러의 'sympathie'는 번역자에 따라 각각 '공감'(이을상 옮김)과 '동감'(조정옥 옮김)³⁾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저자에 의해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된 'empathy'의 경우 '공감'⁴⁾, '감정이입'⁵⁾ 등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여기에서는 영어의 'sympathy'와 'empathy'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서술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맥락에 따라 독일어 'sympathie'와 'einfühlung', 프랑스어 'sympathie'와 'empathie'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이 'sympathy'와 'empathy'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된 독일어나 프랑스 등 유럽어 표현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 성격의 단어임을 밝혀둔다.

3) 이들은 모두 막스 셸러의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를 저본으로 한 번역본이다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의만드는지식, 2013./막스 셸러, 조정옥 옮김,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6.). 아울러 논의의 과정에서 다른 저본을 인용할 때에는 원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이기 위해 '공감', '동감', '감정이입' 등 저자나 번역자가 선택한 용어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그러나 이들을 본문에서 연구자의 말로 풀어 설명할 때는 '공감'으로 통일하여 설명하였다.

4) 메리 고든, 문희경 옮김, 《공감의 뿌리》, 산티, 2010. 원제는 Roots of Empathy: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5) 이리나 프레콕, 신홍민 옮김, 《감정이입》, 큰나무, 2008. 원제는 Einfühlung: oder Die Intelligenz des Herzens.

이러한 상황은 공감의 개념을 명확하게 만들거나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 현재적 필요에 의해 재정의하는 방식의 논의를 필요로 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감의 개념과 의미의 자체를 다루는 국내의 논의는 찾아보기 거의 어렵다. 물론 문학교육 분야의 일부 연구에서는 공감이라는 말의 혼란스러운 사용 양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의하기 위한 논의들도 있다.⁶⁾ 여기에 속하는 논의들은 공감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실제 문학작품 읽기의 과정을 공감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감을 문학작품 읽기 과정의 어떤 국면 또는 문학작품에 대한 독자 반응의 특수한 종류로 한정지어 이를 개인의 감정적 반응의 어떠한 종류로 환원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공감을 텍스트나 독자 등 주도적 요인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파악할 경우, 공감은 단순히 독자가 문학작품과 작품을 이루는 어떤 요소에 공감했는지 못했는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문학교육에서 공감은 독자가 작품 읽기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공감 '하기' 는 지도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면 독자는 어떤 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감은 개인의 감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양한 요인과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주체는 공감과 유사한 '감정이입' 이나 '동일시' 와 같은 정신적 태도로서 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결국 공감에 대한 정의나 재개념화의 작업은 무엇보다 이 말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그것의 개념을 현재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감과 유사한 정신적 태도와 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공감을, 나아가 개인의 내면이 공동체의 보편성과 만나는 현상을 보다 섬세하고 의미 있게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공감의 개념을 살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말 '공감' 이 형성된 과정을 살피고, 이 말이 번역어임을 감안하여 '공감' 과 짝을 이루는 용어인 'sympathy' 와 'empathy' 의 역사적 배경 및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공감의 개념을 정의해보도록 한다.

6)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들 수 있다. 김정진, 《시적 공감 과정의 학년별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 문아람, 《이해 공감적 문학교육을 위한 교수방안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4.

7)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p.47.

II. 번역어 '공감' 의 형성 과정

공감의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말 '공감' 과 관련 용어들 대부분이 근대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며, 이들이 근대적 윤리의 개념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때 해당 용어에 담긴 근대적 윤리의 개념은 대체로 영어의 'sympathy' 와 'empathy' 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근대 이전까지 '공감' 은 한자(漢字)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조합하여 “함께(共) 감격하다(感)”⁸⁾를 뜻하는 단어였다. 이 때 '共' 과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 '同' 이 '感' 과 합쳐져서 된 '동감' 역시 공감과 대체 가능한 관계를 이루어 사용되었다. 가령 《조선왕조실록》에 '유명공감(幽明共感)'⁹⁾과 '유명동감(幽明同感)'¹⁰⁾이 각각 사용된 경우에서, 해당 부분 전후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둘은 모두 “모두 감격한다”는 뜻이다.¹¹⁾ 이러한 예는 거의 비슷한 두 글자를 번갈아 사용하여 “함께(共·同) 느낀다(感)”라는 유사한 의미를 만든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글자의 조합으로 된 '동정(同情)'의 경우도 근대 이전에는 공감이나 동감과 유사하게 '같은 마음'의 의미¹²⁾나 '정을 나눈다'는 의미¹³⁾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보다는 주로 '동조(同調)'나 '동의(同意)'¹⁴⁾ 혹은 '동참(同參)', '동맹(同盟)'¹⁵⁾ 등의 뜻을

8) 이 때, '感'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느끼다', '감동한다', '감격한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9) “(임금의) 은덕(恩光)이 거둬지니, 저승과 이승에서 함께 감격합니다(恩光疊臻, 幽明共感).”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1475) 2월 8일(丁亥). 밑줄은 인용자.)

10) “밝은 지혜(聖明)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불쌍히 여겨 신이 물러나 안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공부가 부족한 데 대한 비통함을 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감격할 것이며, 신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고자 할 것입니다.(幽明同感, 隕結圖報)” (《조선왕조실록》 선조 28년(1595) 10월 1일(庚子). 밑줄은 인용자.)

11) 물론 전자의 경우 감격하는 주체가 둘(이승과 저승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후자의 경우 하나(살아서는 물론 죽어서까지)라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주체나 상황을 아울러 지칭한 뒤 이들 혹은 상황에서 감격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2) “은 나라가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열조(列朝)의 성전(成典)을 상고하여 위아래가 슬픔으로 경향이 없는 때에 감히 작은 정성을 외람되게 진달하였다.(肆以舉國之同情, 克稽列朝之成典, 當上下悲遑之際, 敢效微誠之猥陳.)” (《조선왕조실록》 고종 즉위년(1863) 12월 13일(乙酉)).

13) “형제가 화락하여 정을 같이하면 인도를 다하는 것이다. 근자에 보면 형제간에 노비와 토지를 가지고 다투는 자가 있는데, 이 풍속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매우 마음 아픈 일이다.(兄弟和樂, 上下同情, 則人道盡矣。近觀兄弟, 有爭奴婢田地者, 此俗不美, 予甚痛(馬)焉)” (《조선왕조실록》 중종 5년(1510) 1월 24일(辛巳)).

14) “인천(仁川)을 결단코 개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온 나라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고 조정의 논의에서도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仁川之決不可開港, 卽舉國之同情, 朝議之已定者也)” (《조선왕조실록》 고종 16년(1879) 7월 17일(己丑)).

15) “같은 마음으로 난을 일으킨 자에게는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법을 쓸 수 있으면 또한 악을 징계한 법이 됩니다.(其同情爲亂者, 自可用全家徙邊之法)” (《조선왕조실록》 중종 10년(1515) 11월 25일(丁未)). 이밖에 '동정인(同情人)'과 같은 표현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국가기록 문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나타내었다.¹⁶⁾

그러나 19세기 후반 근대적 윤리를 의미하는 'sympathy'가 조선에 소개되면서 '공감', '동감', '동정'은 재래(在來)의 일상적 의미를 넘어 'sympathy'에 대한 번역어로서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sympathy'의 개념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최소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간행된 외국어 사전의 역사를 통해 살펴 볼 때, 'sympathy'에 대한 번역이 시도된 최초의 사례는 언더우드(H.G. Underwood)가 1890년에 간행한 《훈영조전》¹⁷⁾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sympathy'와 'sympathize'에 대한 번역어로 “동고동락”과 “동고동락 호오, 고락을긋치호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윤리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같이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말이었다. 이어 1891년에 간행된 스콧(J. Scott) 편찬 《English-Corean dictionary》¹⁸⁾에서는 'sympathy'의 번역어로 “위로하다”가 제시되어 있으며, 언더우드의 번역에 비해 타인에 대한 주체의 적극적인 행위가 강조되었다. 이후 20여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존슨(G.H. Jones) 편찬의 1914년 판 《英韓字典 영한조전》¹⁹⁾에서는 'sympathy'가 “동정(同情): 동감(同感)”으로 번역된다. 존슨이 'sympathy'의 번역어를 '동정'과 '동감'으로 좁혀 선택하게 된 근거는 바로 당대 일본과 중국의 번역어였다.²⁰⁾ 《영한조전》의 뒤를 이어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외국어 사전들은 'sympathy'를 '동정'으로 번역함으로써, '동정'은 'sympathy'의 번역어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광수의 '동정론(同情論)'을 필두로 한 다

16) 최기숙의 논의에 따르면, “감정의 통제를 수양의 징표로 간주했던 사대부들은 감정에 관한 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유 문법을 만들어 가는 한편, 일상적 차원에서 감정의 실제적인 작용과 효과 및 예에 맞는 감정 교육이라는 실용적 차원에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하는 글쓰기를 수행했다.”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동방학지》, Vol. 1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p.47.) 이러한 글쓰기 과정에서 사용된 한자 혹은 단어는 ‘感情’ 혹은 ‘情’이었으며, 이는 해당 한자 혹은 단어에 대한 오늘날의 사전적 정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7) 언더우드(H.G. Underwood) 편, 《훈영조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Kelly & Walsh ; London : Trubner & Co., 1890,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2권, 박문사, 2012.에서 재인용.

18) 스콧(J. Scott) 편, 《English-Corean dictionary : being a vocabulary of Korean colloquial word in common Use》, Corea: Chi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3권, 박문사, 2012.에서 재인용.

19) 존슨(G.H. Jones) 편, 《영한조전(英韓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 Kyo Bun Kwan, 1914,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4권, 박문사, 2012.에서 재인용.

20) 《영한조전》의 서문(preface)에서 존슨은 사전 발간 당시 조선어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외래어의 유입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terminologies)이 한국의 학자들에게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짧은 기간에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과 중국에서 유입된 용어들이 한자의 조합으로 된 것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존슨은 앞선 조선어 사전들과 달리 “영어의 과학, 철학, 종교, 법률, 교육 용어 및 일상어와 등가(equivalents)를 이루는 한국어 혹은 한자-한국어(Chi Sinico-Korean)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존슨 편, 앞의 책, <서문(preface)>, p. I, 앞의 책, pp.21-22.에서 재인용.).

양한 담론들을 통해 근대의 계몽적·윤리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1938년에 조선어로 된 최초의 종합사전인 문세영의 《조선어사전》²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는 ‘동정(同情)’이 “⊖가엾게 여기는 것. 불상하게 생각하는 것. ⊖남의 경우를 이해하여 그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때 ⊖는 근대적 윤리로서의 의미인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²²⁾ 반면 ‘동감(同感)’은 “같이 느끼는 것. 생각이 같은 것.”으로 정의되어 단어를 이루는 각 한자의 뜻을 단순하게 결합한 근대 이전의 용례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공감(共感)은 이때까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1940~50년대를 거치면서 ‘동정’은 ‘타자에 대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시 한 번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 제시된 의미 중 ⊖의 의미가 축소되는 동시에 ⊖의 의미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동정에 대한 오늘날의 사전적 정의인 “1.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엾게 여김. 2.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풀.”으로 이어지게 된다. 동정의 의미의 이러한 변화는 영어 ‘empathy’의 개념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면서 심리학과 윤리학을 중심으로 이 말이 ‘sympathy’의 자리를 대치하게 된 결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신학논단》에 영문으로 작성된 반피득(Peter van Lierop)의 논문에서는 상담심리학의 관점에서 목회상담의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피득은 상담자의 ‘empathy’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당시 타인에 대한 주체의 이해를 의미하는 용어로 ‘empathy’가 선택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논문에서는 ‘empathy’를 ‘사랑에 빠지는 것(falling in love)’이나 ‘(상대를)마음 깊숙이 이해하는 성서적 감각(the Biblical sense of understanding with the heart)’으로 설명하는 한편 유사용어로 그리스어 ‘empathia’, 독일어 ‘Einfühlung’은 물론 영어의 ‘sympathy’를 제시하였다.²³⁾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논문에서 ‘empathy’에 대한 번역이 ‘동정심’과 ‘감정일치’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국문초록’에 해당되는 ‘개요’에서는 ‘empathy’를 동정심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개요’의 맨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동정심(Empathy)이란 말의 원뜻은 “감정일치”이

21) 문세영, 《조선어사전》, 박문서관, 1938.

22) ‘동정파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동정이 ‘동조’나 ‘동의’의 의미로서 사용되었던 근대 이전과 같은 방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는 ‘동정파업’이 “일부의 노동자가 동맹파업을 행하였을 때 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노동자도 이를 동정하여 행하는 동맹파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제어와 의미는 현재 국어사전에도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다.

23) 반피득(Peter van Lierop), 〈Empathy And Its Unique Function In Counseling In Christian Service〉, 《신학논단》, Vol.4,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58, pp.91-92.

다.”²⁴⁾라는 말이 주석처럼 달려 있다. 이러한 설명은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empathy’와 나란히 놓이는 것이 점차 어색해졌거나 부정확하다는 감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1950년대 무렵 ‘동정(심)’의 의미가 1930년대까지의 쓰임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달라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empathy’가 동정심을 거쳐 ‘감정이입’으로 번역되어 온 과정은 1960-70년대 윤리학과 심리학 논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²⁵⁾, 1990년 들면서 이를 ‘공감’이나 ‘동감’으로 번역하는 논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empathy’는 기존의 ‘감정이입’을 포함하여 ‘공감’, ‘동감’ 등과 같이 다양한 번역어를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감’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영어의 ‘sympathy’와 ‘empathy’를 번역한 용어로서, 그것은 ‘sympathy’와 ‘동정’의 번역어 짝을 이루다가 ‘empathy’ 개념이 소개된 이후 ‘동감’, ‘감정이입’ 등과 혼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학문의 분야나 논자의 의도에 의해 ‘sympathy’와 ‘empathy’ 중 어떤 개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동정’, ‘동감’, ‘감정이입’, ‘공감’ 등의 번역어 중 어떤 말로 옮길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영어-번역어’의 쌍이 생겨나고 있다. 영어와 우리말 사이에서 각각 선택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이른바 ‘이중의 혼란’이 생겨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공감 개념의 지나친 확장과 유사용어와의 혼란스러운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하였다.

III. ‘sympathy’와 ‘empathy’의 역사적 배경

그렇다면 번역어 ‘공감’과 짝을 이루는 서양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즉 한국어 논의에서는 과연 어떤 개념을 ‘공감’으로 혹은 ‘공감’과 유사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동정’의 경우에서와 같이 번역된 결과 전래된 서양의 개념이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거나 발전된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서양의 ‘sympathy’ 개념이었다. 더욱이 공감을 서양에서 제기된 근대적 개념으로 그 범위를 한정짓지 않으면, 논의가 매우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현상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나 방법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24) 반피득, 앞의 글, p.98. 인용한 부분 다음에는 “철학박사 반피득 / 이승익 옮김”이 덧붙여 있다.

25) 1970년대 발간된 윤리학과 심리학 논문들에서는 ‘empathy’를 감정이입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나의 行動에 대해 他人이 어떻게 反應할 것이냐를 豫見하는 能力-感情移入(empathy)”과 같은 설명에서 ‘empathy’는 타인을 의식한 주체의 자기반성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근대적 윤리 개념으로서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이창우, <도덕발달의 심리적 과정>, 《인문과학》, Vol.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p.81).

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양의 공감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고,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영어의 'sympathy'와 'empathy' (독일어 'Einfühlung')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서양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에 대한 논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및 당대의 소피스트의 철학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의 정화'나 '감정의 배설' 등의 해석이 갈려 나타나지만, 카타르시스의 원인은 비극이 불러일으켜 관객이 느끼는 연민과 공포이다.²⁶⁾ 관객의 연민과 공포는 곧 배우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일치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감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는 많은 논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행위에 있어 감정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D. Hume)과 아담 스미스(A. Smith)부터라고 본다. 흄과 스미스는 18세기 이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어떤 대상과의 친밀감(affinity)'이나 '질병과 치료제와의 관련성', '타자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함께 있는 사람의 고통에 영향을 받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²⁷⁾ 'sympathy'라는 용어에 윤리적이고 친사회적 행위의 원리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흄과 스미스는 이성적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으로부터 윤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홉스(T. Hobbes)나 로크(J. Locke)의 견해에 반대하면서 윤리적 행동에 있어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함께 느낌"이라는 의미의 'sympath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흄에게 있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소감이나 정념을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방식으로 표상"하는 것을 뜻하는데,²⁸⁾ 이는 타자의 정념(passion)이 자아의 정신에 들어와²⁹⁾ 인상(impression)으로 바뀐 뒤, 이러한 인상이 다시 관념으로 바뀌어 자아의 정념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스미스는 공감을 "다른 사람들의 ……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류의식(同類意識: fellow-feeling)"³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과정 자체에 좀 더 주목한 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에 내재된 원리로서의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공감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인간의 본성이며,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친사회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의 동력이 되며, 상상력

26)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p.49.

27) Jahoda, G., Theodor Lipps and the Shift from "Sympathy" to "Empathy",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Vol.41(2), 2005, p.152.

28) 데이비드 흄, 김성숙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09, pp.352-353.

29) 흄은 이를 지각(perception)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흄은 "정신의 모든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상은 선행 지각 없이 영혼에 발생하는 1차적 인상과 1차적 인상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정념 및 이와 유사한 정서"를 2차적 인상으로 구별하였다. 여기서 설명하는 정신의 과정에 대한 흄의 논의는 2차적 인상이 관념으로 바뀌는 과정을 뜻한다(데이비드 흄, 앞의 책, p.309.).

30)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정국 옮김,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p.77.

에 의해 발생하고 강화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흠과 스미스의 공감 개념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과 헤르바르트 스펜서(Herbert Spencer) 등과 같은 동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인간과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흠과 스미스로부터 시작되어 다윈에 이어졌던 공감 개념과 별개로 19세기 후반 독일에서는 피셔와 립스 등을 중심으로 'empathy'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는 글자 그대로 " '감정을 집어넣는(feeling into)' 행위" ³¹⁾를 뜻하는 일상용어 'Einfühlung'에 "예술 작품에 능동적으로 지각적인 몰입을 하는 주체의 심리적 투사의 현상" ³²⁾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Einfühlung'을 미학적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한다. 피셔의 'Einfühlung' 개념을 받아들인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는 이를 미학적 차원에서 좀 더 정교화하여 "대상이 되는 힘(power), 즐거움(joy) 또는 갈망(longing) 등을 보거나 듣거나 외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결국 "다른 것 안에서 내 자신을 느끼는 것" ³³⁾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이는 립스의 'Einfühlung'이 "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지각과 통각을 통해 일깨워진, 타인과 나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체험'의 추구를 근거로" ³⁴⁾ 감정 주체 내부에서 스스로가 감정 대상과 같은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주체는 자신의 정신적 방향을 감정의 대상으로 정하여 "감정이입하는 주체의 분명한 확실성을 감정이입 된 주체에게 전이" ³⁵⁾하게 되며, 이러한 까닭으로 립스의 'Einfühlung'은 주로 '감정이입'으로 번역된다. 또한 립스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key)" ³⁶⁾으로서 윤리학적·사회학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Einfühlung'의 대상이 삶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립스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공감(Empathy)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감각으로 말하자면, 삶 그 자체이다. 그리고 삶은, 일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 안에서의 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은 활동(activity)이다: 자유롭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쉽거나 고되거나, 의견이 일치되거나 내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거나, 긴장되거나 이완되거나, 한 가지 지점에 집중하거나 여러 갈래

31) Koss, Juliet, On the Limits of empathy, *The Art Bulletin*, Vol.88, No.1, 2006, p.139.

32) Koss, Juliet, 앞의 글, 같은 쪽.

33) Lipps, Theodor, Karl Aschenbrenner TR., Empathy and Aesthetic Pleasure, Karl Aschenbrenner&Arnold Isenberg Ed., *Aesthetic Theorie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Ar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5, p.404.

34) 김윤상, <몸 담론의 미학적 기초로서 감정이입>, 《독일문학》, Vol.12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2, p.66.

35) 이은영, <립스 감정이입론에 대한 에디트 슈타인의 논쟁>,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36, 한국현상학회, 2006, p.108.

36) Jahoda, G., 앞의 글, p.155.

로 분산된 수많은 필수적 활동 안에서 “자신을 상실”하거나.³⁷⁾

이후 립스의 'Einfühlung' 은 외부 세계 인식과 해석에 관련된 인간의 정신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독일의 현상학과 해석학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동시에 1909년 에드워드 티치너(Edward Titchener)에 의해 'empathy' 로 번역되어 영미권 학자들에게 소개되면서 심리학은 물론, 윤리학·미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감(empathy)의 개념은 티치너의 연구 분야였던 심리학에서 타자 지향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널리 사용된 이래 차츰 윤리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도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뜻하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sympathy' 와 'empathy' 는 18세기 영국과 19세기 독일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용어이다. 그러나 'empathy' 가 'sympathy' 를 반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두 용어는 각각의 발생과 발전을 겪어왔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sympathy' 와 'empathy' 에 대한 구별을 지은 다음 논의의 목적이나 배경 학문의 관행 등에 따라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그 결과 두 용어는 공감과 관련된 현상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empathy' 가 'sympathy' 보다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세기 초반 독일어 'Einfühlung' 이 영어 'empathy' 로 번역되어 영미권 학자들에게 소개되었을 무렵에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의 위치를 두고 영어의 'sympathy' 와 'empathy' 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심리학 용어로서 등장한 'empathy' 가 'sympathy'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심리학에서는 물론 생물학·미학·윤리학 등에서도 타인과의 감정적 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서 'empathy' 를 차츰 선호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뇌 과학에서의 '거울신경(mirror neuron)'의 발견³⁸⁾에 힘입어 공감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관심을 모음에 따라 공감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논의들 대부분이 'empathy' 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37) Lipps, Theodor, 앞의 글, pp.403-404. 인용한 글은 립스의 독일어 원고를 영어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립스가 사용한 'Einfühlung' 이 'empathy' 로 옮겨져 있으며, 이는 인용한 글에서도 주석을 통해 밝히고 있는 바이다.

38) “자신의 신체에서도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체험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거울 뉴런이라 한다.” (요하임 바우어, 이미옥 옮김, 《공감의 심리학》, 예코리브로, 2006, pp.24-25.)

IV. 공감의 개념과 형성단계

우리말 '공감'에 해당하는 'sympathy'와 'empathy'는 역사적으로 어떤 측면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이 둘은 '공감', '동감', '감정이입', '동정' 등 다양한 우리말 번역어를 공유하지만 해당 용어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부각되는 측면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공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도 어떠한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감과 공감이 아닌 것을 가르는 방식보다는 제시된 공감의 조건이 갖는 의미와 함께 각 조건과 관련된 공감의 유사 혹은 주변 개념들을 살펴보는 방식이 공감 개념을 섬세하게 살피기에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는 공감이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특정한 맥락이나 측면을 부각시켜 강조하기 위해 근대 이후 제기된 용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많은 논자들은 공감에 대해 논의할 때 인간의 공감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거의 본능에 가까울 만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 가정한다. 그래서 공감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그러한 현상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특히 해당 논의가 제기된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 하에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맞춰지게 된다.

1. 공감의 개념

무엇보다 공감이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는 점에서 '감정'의 일치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공감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분야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지만³⁹⁾, 일반적으로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⁴⁰⁾을, 쉽게 말해 인간의 “쾌·불쾌의 반응”⁴¹⁾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감은 타인과 동일한 느낌이나 기분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감의 개념은 자신의 선호나 취향을 나타내거나 타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39) 일반적으로 느낌(feeling)은 감정과 감각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기분(mood)은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성을 지닌 상태를 뜻한다. 또 감정(정서)과 정동(情動)은 영어의 'emotion'과 'affection'의 번역어로 혼용되고 있고, 정서(情緒)와는 거의 대체 가능한 용어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emotion'은 신체 외부 자극에 의해 주로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지만 이것을 일으킨 원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affection'은 이러한 'emotion'이 표정이나 말, 행동 등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pp.68-73.). 그러나 “느낌, 감정, 기분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의적 구분에 불과”하다(최현석, 앞의 책, p.75). 본고에서 사용하는 '감정'은 'emotion'과 'affec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40)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25237, 2014년 7월 9일 검색)

4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구별된다.⁴²⁾

동시에 공감은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認知·cognition)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타인이 처한 상황을 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 없이 감정적 일치만 일어나는 현상인 '감정 전염(emotional contagion)' 과의 대조를 통해 보다 분명해 진다. 감정 전염의 현상은 쉽게 말해 어떤 분위기에 몰드는 것으로 이를 겪는 사람들은 본인이 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데, 20세기 초 유럽에서 나타났던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 등과 같이 주로 군중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분전환을 위해 시끌벅적한 장소를 찾는다든가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과 같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공감이 단순한 앎이나 감정 전염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성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되는 정신과정임을 의미한다. 이 때 동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적 동시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간 차이를 갖지만 결국 하나의 정신적 과정안에 포함되는 집합과 같은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된 이론은 없으나, 공감 현상에서 인지와 감정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거나 이 둘이 모두 관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라는 공감의 특징은 서양의 도덕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ympathy' 개념이 등장한 18세기 이전까지 서양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주로 억제해야 하는 것 또는 적절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었으며, 자연스럽게 도덕의 개념 역시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태도나 행동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⁴³⁾ 흄과 스미스 등에 의해 도덕적 행위의 원천으로서의 'sympathy' 가 등장한 이래로 (도덕)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재평가하기 위한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도덕성의 유래와 본질을 이성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42)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선호', '취향', '동의', '앎' 과 같은 용어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기에 제시한 것은 공감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 게시판이나 SNS에서 어떤 사람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공감' 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페이지 스크랩 서비스의 이름을 'My 공감' 으로 붙이기도 했다.

43) "17세기까지 서구 도덕론은 덕성과 도덕을 감정 억압적 '이성의 사실' 로 본 플라톤적·스토아적 합리주의자들과 도덕을 이성의 생산물, 즉 이기심을 통제하는 이성적 '협정' 이나 '계약' 에 의해 생산된 '인위적 장치' 또는 '인공물' 로 정의한 흄스(T. Hobbes), 로크(J. Locke), 맨더빌(B. Mandeville) 등의 네오에피쿠리언 사조가 주도했다." (이영재,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명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414.)

도덕은 행동과 정념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앞에서 입증했듯이 이성만으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정서를 환기하여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누른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성 자체는 전혀 힘이 없다. 따라서 도덕성의 여러 규칙들은 결코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⁴⁴⁾

흙의 이러한 주장은 '인상과 관념의 이중 결합(double association of impressions and ideas)' 관계⁴⁵⁾를 통해 근본적인 차원으로부터 설명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포함하여 인간의 정신에서 흙이 가장 주목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상-관념 간의 인과 관계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는 '정념(passion)' 이었다.⁴⁶⁾ 흙의 이러한 관점은 많은 철학자들로 하여금 이후 (도덕)철학에 있어 감정의 본질과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고, 같은 맥락에서 공감은 인간의 감정을 친사회적 행위의 원천으로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성중심의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받아왔다.

아울러 공감이 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인간의 감정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근대적 의미의 평등한 개인을 '발견' 하게 된 계기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공감 개념에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하는 모든 인간 사이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감정의 존재와 기능, 그리고 그것의 표현을 통해 수월하게 설명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공감이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라는 점은 그간 공감 개념이 주목받아온 이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는 공감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제시될 만한 것이다.⁴⁷⁾

한편 '거울 뉴런'의 즉각적 작용에 힘입은 무의식적 모방 현상(이른바 정신적 '공명 현

44) 데이비드 흙, 앞의 책, p.497.

45) 흙의 '인상과 관념에 관한 이중 결합 관계'는 흙이 공감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정신적 과정을 의미한다. 흙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외부 세계의 인상을 받아들여 이를 통해 관념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관념은 반성적(2차적) 인상인 '정념'을 산출하게 된다. 이 때 산출된 정념은 '주체/타인'과 같은 대상과 '쾌/불쾌'와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 긍지(pride)와 소심(humility)', '사랑(love)과 미움(hatred)'이라는 4가지 현상으로 구체화되게 된다. 이렇게 인상을 통해 관념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 정념이 결합되는 방식을 '인상과 관념에 대한 이중 결합 관계'라고 부른다(Altmann, R. W., Hume on Sympathy, Tweyman, S.(Ed.), David Hume: critical assessments, Routledge, 1995, pp.464-466 참고.).

46) 흙에게 있어 정념은 '(감각→)인상→관념→2차적 인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적 인상으로, 반성적 인상이라고도 부른다. 정념은 대체로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쾌락이 산출해 내는 것으로 미움, 질투, 긍지, 소심 등을 말한다(데이비드 흙, 앞의 책, pp.309-310.).

47) 공감 개념이 인간의 정신 과정에 대해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으로 설명한 바에 힘입어 오늘날 인간의 감정에 대한 논의들 대부분은 감정이 인지나 의지와 같은 요소와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거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 심리학의 '감정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개념에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정하는 것, 감정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성과 감정 중 어느 쪽에 주도권을 부여하느냐의 차이일 뿐 이 둘의 동시적 작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윤석현, 김언주, <감정 지능의 의미와 측정>, 《교육심리학연구》 Vol.10, No.3, 한국교육심리학회, 1996, p.186).

상)을 공감의 범주에 넣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를 배경으로 하는 논의가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논의에서는 공감 현상을 신경 조직의 작동 결과로 설명한다. 이러한 모방 현상은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통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거울 뉴런이 “즉각 작동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석적인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한다”⁴⁸⁾는 점에서, 모방 현상은 공감을 위한 별도의 기초적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공감의 개념은 친사회적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윤리적 태도에 관한 것인데, 모방현상은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곧 윤리적 행동의 한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방현상을 공감에 대한 논의에서 무시할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공감의 주체가 파악한 타인의 감정이 보편성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모방 현상은 본고에서 제시한 공감의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감의 초기 형태 혹은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을 통해 공감이 작동될 수 있는 기초의 개념으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감은 공감하는 주체와 공감의 대상 사이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란 공감의 주체 스스로가 공감의 대상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또는 거꾸로 자신을 공감의 대상과 다른 존재로 인식함을 뜻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의 입장에 놓았을 때 상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지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⁴⁹⁾라고 지적한 아담 스미스의 설명처럼 공감은 대상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을 통해 대상의 감정을 주체가 자기 안에서 되살려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공감이 공감의 주체가 실제로 공감의 대상이 ‘되는’ 체험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인 양’ 상상하는 일종의 추체험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라는 조건이 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재의 보편성을 의미한다면, ‘공감하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라는 조건은 공감 주체의 개별성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공감을 ‘감정이입’이나 ‘동일시’ 등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일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감정이입과 감정합일, 동일시 등은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은 주체가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감정이입이란 “자신의 감정을 자연계나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고, 그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⁵⁰⁾ 이는 립스의 미학 이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용어(‘Einfühlung’)으로, 립스는 본질적

48) 요하임 바우어, 앞의 책, p.17.

49) 아담 스미스, 앞의 책, p.9.

으로 주체와 타자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전제로 타인의 내적 행동을 함께 하며, 이 같은 '함께 하기'가 바로 감정이입이라고 설명한다.⁵¹⁾ 한편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과 유사한 정신적 과정을 동일시로 설명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의 동일시는 자아가 타자인 것처럼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부터 타자의 어떤 면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방하는 것까지 다양한 양상을 띤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이트는 동일시의 전형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보는데,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시는 모범으로 삼은 사람을 본받아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려고 애쓰는 것"⁵²⁾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자아가 대상의 고유한 속성을 받아들여 더욱 풍요로워"지는 과정이며 이를 '투사'로 부르기도 한다.⁵³⁾

결국 공감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전제함으로써 주체가 타인의 존재로 바뀔 것을 의미하는 감정이입이나 동일시 등과 구별되며, 이를 통해 보다 윤리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막스 셸러(Max Scheler)는 감정합일 현상을 "타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셸러에 따르면 "타인의 인상에 도출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자기 느낌과 자기 가치감 없이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⁵⁴⁾고 설명한다.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체적 행동이 아니며, 주체적이지 않은 행위는 도덕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기 어려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슬픔을 인지하여 자신도 함께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경우, 그렇게 행동한 주체는 결국 타인의 슬픔을 타인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재)생산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주체가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경험과 느낌의 기억을 통해 슬픔을 재생해 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과정은 결국 타자 지향적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재)생산해 내는 유아론적(唯我論的) 태도이며, 타인의 슬픔을 단서로 한 자신의 감정행위를 뜻하게 된다. 따라서 공감이란 감정상태가 아니라 감정 기능이며⁵⁵⁾, 실제로 타인과 같이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감정이입이나 감정합일, 투사와 같은 정신적 행위가 공감에 비해 무가치하다거나 무조건적으로 저급하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신적 과정은 슬픔의 당사자인 타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때때로 타인에게 위로받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감정이입 등의 정신적 행위는 실상 주체 자신의 감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에서 공감에 비해 타자 지향의 의미가 부족한 것이다.

50)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51) 김윤상, 앞의 글, pp.58-59.

52)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p.122.

53)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p.131.

54) 막스 셸러, 조정옥 옮김,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6, p.114.

55) 막스 셸러, 앞의 책, p.107.

공감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공감의 개념을 앞에서 제시한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과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 라는 조건에 맞추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공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논의들에서 다루는 공감은 타인의 처지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감정적 일치이며, 이 과정에서 공감의 주체는 공감의 대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통해 정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양의 'sympathy' 와 'empathy' 의 대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용어가 '공감' 을 번역어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도 이 둘을 공감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sympathy' 와 'empathy' 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공감과 관련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sympathy' 와 'empathy' 의 구별이 공감 개념을 보다 유용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sympathy' 와 'empathy' 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시된 용어이다. 'sympathy' 는 흄과 스미스에 의해 도덕철학의 맥락을, 'empathy' 는 피셔와 립스에 의해 미학과 심리학의 맥락을 취하는 용어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두 용어는 같은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초점을 맞추는 지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sympathy' 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의 결과 나타나는 공동체적 삶의 측면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반면, 'empathy' 는 타인(미학에서는 타자, 즉 감상의 대상물)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이 개인의 정신에서 나타나는 과정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로렌 위스페(Lauren Wispé)에 따르면 'sympathy' 가 “다른 사람의 곤경(predicament)에 대한 내적 재현과 반응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정신의 과정으로 다른 사람의 안위(well-being)에 관심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인 반면 'empathy' 는 “상상적이고 모방적인(imaginal and mimetic) 능력을 필요로 하는 정신의 과정으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도라고 설명한다.⁵⁶⁾ 그리고 'sympathy' 와 'empathy' 는 각각 '관계 맺기(relating)' 와 '앎(knowing)'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때 'empathy' 는 'sympathy' 보다 공감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앎' 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sympathy' 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애로운(benevolent) 태도와 연관된” “'empathy' 의 특별한 종류”⁵⁷⁾로도 볼 수 있는 개념인 반면, 'empathy'는, 물론 극단적인 대비이지만, “순전히 무심한 관찰이나 사디즘의 잔혹함(cruelty of sadism)과도 일치할 수 있” 을 만큼⁵⁸⁾ 대상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이에 따

56) Wispé, L.,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 No. 2, 1986, p.318.

57) Chismar, D., Empathy and Sympathy: The Important Difference,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22, 1998, p.258.

른 행위보다 주체의 정신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결국 'sympathy' 와 'empathy' 의 차이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 현상에서 타자의 안위 등과 같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감정' 을 중요시할 것인가, 타자의 감정적 상황에 대한 '앎' 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따라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⁹⁾ 따라서 'sympathy' 와 'empathy' 를 아우르는 공감의 개념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타인의 안위에 관심을 갖는 태도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sympathy' 와 'empathy' 로 구별될 수 있게 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sympathy' 와 'empathy' 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결론 자체가 아니라, 이 두 용어가 인간의 (친)사회적 행위의 바탕이 되는 정신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더욱이 'sympathy' 가 'empathy' 의 특수한 국면, 즉 'empathy' 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 공감하는 주체의 연민이나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sympathy' 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둘의 관계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을 보충하거나 하나의 용어가 다른 용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sympathy' 와 'empathy' 의 차이를 통해 공감 개념의 정의를 위한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 공감하는 주체가 공감하는 대상에 대해 연민 (compassion)의 감정을 갖거나 대상의 안위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조건은 공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자, 'sympathy' 와 'empathy' 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앞서 공감의 개념 혹은 조건으로 제시한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과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 가 'empathy' 를 의미하며, 여기에 '대상에 대한 연민이나 대상의 안위에 대한 관심' 이라는 조건이 덧붙여 'sympathy' 를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일찍이 막스 셸러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셸러는 "타인들의 감정 상태들에 대한 단순한 파악, 이해 또는 추체험 같은 모든 태도에서 본래적인 동감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 ⁶¹⁾

58) Darwall, S., Empathy, Sympathy and care, *Philosophical Studies*, Vol.89, 1998, p.261.

59)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감정적 일치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도덕적·친사회적 행위에 주목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sympathy' , 공감하는 주체가 대상과의 감정적 일치를 위해 타자의 상황과 감정 등을 아는 현상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empathy' 사용을 선호한다.

60) 물론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행복이나 기쁨에 대해서도 감정적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이 글에서 공감의 세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타인에 대한 긍지와 같은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흄이나 아담 스미스, 막스 셸러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한대로 공감은 타인이 겪은(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더 잘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의 경우 부정적 감정에 대한 그것과 감정의 방향만 다를 뿐 작동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를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부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에 대해 주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추체협'에 대해 셀러는 '뒤따라 느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특히 고통)을 타인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⁶²⁾ 이러한 과정에는 연민과 같은 타인 지향의 태도가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타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인지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셀러는 이러한 상태를 공감과 구별하기 위해 '뒤따라 느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경우에 따라서 공감이 지향하는 것과 정반대의 비윤리적 태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어떤 사람을 고문 하거나 타인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뒤따라 느낌'과 같은 정신의 과정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앙드레 콩트-스폰빌(André Comte-Sponville) '뒤따라 느낌'이 그 자체로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단지 상대방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공감을 자아라는 감옥으로부터의 벗어남으로 본다면, 공감도 미덕에 이르는 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에 공감하는가이다. 타인의 증오를 공감하는 행위는 증오를 품는 행위이다. 타인의 잔혹성을 공감하는 사람은 잔혹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디즘적인 쾌락에 가담해서 똑같이 흥분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된다.⁶³⁾

결국 뒤따라 느낌은 윤리적 측면에서 특정한 방향을 지적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윤리적 판단에 앞서 그것의 근거가 될 뿐이다.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뒤따라 느낌을 거친 주체의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잔인함은 잔인한 자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단순히 무감각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감각성은 동감의 결핍과 전혀 다른 결핍"이라고 지적한 셀러의 견해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⁶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감의 개념에 '대상에 대한 연민 또는 대상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라는 조건을 덧붙이게 되면서 공감은 타자 지향의 윤리적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가지는 개념이 된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가 곧 타자 지향의 윤리적인 태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감정적 일치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해로 이어져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공감이 타자 지향의 정신 과정으로서의 의미

61) 막스 셀러, 앞의 책, p.39.

62) 이러한 점에서 셀러의 '뒤따라 느낌'은 위에서 설명한 'empathy'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타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일치 현상을 '뒤따라 느낌'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63) 앙드레 콩트-스폰빌, 조한경 옮김, 《미덕이란 무엇인가》, 까치, 2012, p.131. 인용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공감'은 본고에서 셀러의 용어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뒤따라 느낌'에 해당되는 것이다.

64) 막스 셀러, 앞의 책,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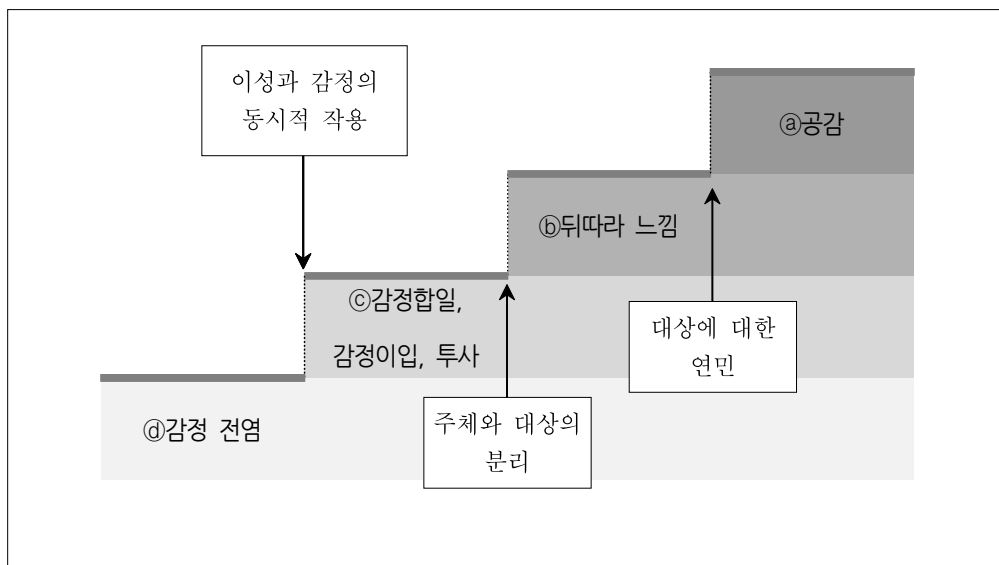
를 갖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연민' 과 같은 조건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2. 공감의 형성 단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감은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 그리고 대상에 대한 연민 등과 같은 조건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공감의 개념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못지않게 공감과 그 주변 개념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정신적 행위는 앞서 공감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주변 개념들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토대가 되는 관계를 이루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일련의 과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감과 주변 개념들 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의 개념들은 모두 타인에 대한 감정적 반응, 특히 타인에 대한 감정의 일치 현상이다. 그리고 이들 반응을 공감 개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따라 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이들 중 공감의 조건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 전염은 ㉠ 단계에 자리하게 된다. 감정 전염은 타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감정적 반응이다. 이러한 작용은 타인이 처한 상황이나 타인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원인에 대한 앎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표현을 통해 그것과 동일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래서 감정 전염은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거울세포'



[그림1] 공감과 주변개념 간의 관계

라 불리는 뉴런의 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정 전염과 같은 반응은 즉각적이고, 특별한 학습이나 경험 없이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으로부터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본능적으로 '모방'을 통해 학습해 나가게 되는데, 모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감정 전염의 과정을 통해 감정적 측면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을 배워 나가게 된다.

㉔의 단계로부터 인지와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개념들은 ㉔단계 이상에 자리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곧 공감의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앎과 동시에 대상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은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이므로 공감의 주체는 앎과 감정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㉔단계의 개념들은 대체로 ㉔단계를 토대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합일이나 감정이입, 투사와 같은 감정적 반응들은 감정 전염과 같은 단계를 통해 주체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여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일치시킨 뒤 대상이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 이유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타인이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된 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타인과 감정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과 같이 앎과 감정적 일치가 선후를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㉔단계에 속하는 반응들은 이성과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데 반해, ㉔단계에 속하는 반응은 감정만을 그 구성요소로 담지하고 있으므로 ㉔단계는 ㉔단계를 토대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앎과 감정적 일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요소나 단계의 선후 혹은 동시적 작용을 가리는 문제는 매우 짧은 순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감의 형성 단계 개념에 관한 문제에서도 앎과 감정적 일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혹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국 선후가 있음에도 순간적으로 일어나 이를 동시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 인지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앎과 감정적 반응이 동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본고의 논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감정적 요소만 나타나느냐 앎을 동반하느냐의 문제만을 고려하였다.

이러 ㉔와 ㉔ 단계는 ㉔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라는 조건을 부가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앎과 감정적 일치가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㉔단계의 감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㉔단계와 ㉔, ㉔단계의 관계 역시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감정합일이나 감정이입과 같은 정신의 과정은 대상에 대한 앎과 감정적 일치를 바탕으로 주체가 대상의 자리로 옮겨가 존재론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주체가 대상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은 주체가 자기동일성을 잃어버리고 타인이 됨을 뜻한다. 'empathy (Einfühlung)'의 감정이입과 같은 정신적 과정의 경우 결국 자아가 예술작품의 세계로 옮겨가면서 '자기 소외(self-estrangement)'의 문제⁶⁵⁾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예술작품의 세계 안에 빠져 자

65) Koss, Juliet, 앞의 글, p.139.

아를 상실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⑥단계는 ③단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즉 뒤따라 느낌과 같은 정신의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러한 정신적 과정은 공감이라 할 수 있게 된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뒤따라 느낌은 그 자체만으로 윤리적 행동을 담보하지 않는다. 여기에 연민과 같은 타자 지향의 태도가 동반될 때, 그것은 비로소 친사회적 태도인 공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감과 그 주변 개념들은 공感到에 적용되는 조건들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이루며, 각 단계에서 하위 단계는 상위 단계의 토대로서 작용한다. 이 때 하위 단계와 상위 단계의 관계는 감정의 주체가 타인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공감하는 주체는 감정 전염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정합일과 뒤따라 느낌을 차례대로 경험한 다음 공感到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感到의 형성 관계는 주체가 타인에 대해 감정적 일치를 이루는 개별적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주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나 대상 등에 따라서 감정 전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뒤따라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공感到에 이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공感到의 개념을 주변 개념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게 되면 공感到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동시에 공感到가 아닌 감정적 일치 현상을 보다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⁶⁶⁾ 따라서 공感到와 그 주변개념이 이루는 관계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관한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공感到를 정점으로 하는 타인에 대한 감정적 태도의 가능역(可能域)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타자의 모든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공感到할 수 없고, 공感到이란 한 번 도달되면 계속 나타나는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대상과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더욱이 공感到은, 흄의 지적대로, '인과, 유사, 인접'에 의존하게 되어⁶⁷⁾ 공간적·시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대상에 대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感到는 그 자체로 어떤 단계를 밝어나가 도달되고 한 번 도달되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과정의 능력이나 가능성 혹은 경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感到를 그 주변 개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

66) 본고에서 공感到와 주변 개념 간의 관계를 일정한 단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구도는 셸러의 '토대 법칙'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막스 셸러는 《동감의 본질》에서 '감정합일-뒤따라 느낌-동감(공感到)-인간애(휴머니즘)-무우주적인 인격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막스 셸러, 앞의 책, pp.215-227.). 그러나 셸러가 설정한 개념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윤리론의 핵심 개념인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도정으로서 "토대 법칙들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이러한 정서 능력들의 가치들의 서열에 기인하는 규범적인(명령적인 규범이 아닌, 이념적 규범적인) 상, 즉 올바른 사랑질서의 상"을 그리기 위한 것들이다(막스 셸러, 앞의 책, p.228.). 따라서 셸러에게 있어 공感到이란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셸러의 주된 관심은 토대 관계에서 공感到의 위 단계에 맞추어져 있게 된다. 반면 본고에서는 공感到를 윤리적 태도의 가장 높은 단계로 보고, 공感到의 형성 관계에서 공感到를 포함한 그 아래 단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67) 데이비드 흄, 앞의 책, pp.354-355.

명함으로써 공감이 가진 이러한 속성을 보다 섬세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감'이라는 말은 'sympathy'와 'empathy'의 번역어로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말이다. 'sympathy'와 'empathy'가 번역된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들 용어는 맨 처음 '동정'으로 옮겨졌으나, 심리적 현상이나 태도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 말은 '공감'을 비롯하여 '동감', '감정이입', '동일시' 등과 같은 말로 번역되다가 최근 들어 '공감'이 가장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공감'이라는 말과 짝을 이루는 'sympathy'와 'empathy'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공감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그것은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 '주체와 대상 사이의 분리', '대상에 대한 연민이나 대상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의 정신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공감'은 개인의 친사회적 행위와 그 이면에 자리한 정신적 동기를 해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의 정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현재적 관점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공감이란 말은 근래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일상어의 지위를 새롭게 얻게 된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새삼스러울 만큼 대중들이 공감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공감과 관련된 태도가 부족하거나 부재하다는 인식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이 다양한 분야에서 호출되는 현상은 개인주의와 다원화의 경향이 고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안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대 이전까지 공동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개인은 전통이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한 채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전통이나 거대 권력과의 단절을 선언하게 되는 근대에 이르러 개인의 존재는 점차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른다. 개인의 존재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철학적 흐름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게 되었고, 개별적 존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라는 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것은 복잡하게' 이해하여 존중하려는 이른바 '포스트모던' 철학의 관점에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여성과 어린이, 제3 세계 등과 같은 소수자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인식론적 틀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을 억압하는 '중심'의 존재를 전제할 때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압도하여 극도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게 될수록 그것은 공동체와 보편적 가치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

주의적 가치는 무책임과 혼란, 그리고 고립된 개인의 존재를 낳게 된다. 공동체와 같은 중심의 개념이 개인의 가치를 억압할 때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그것이 곧 공동체 자체를 부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 가치는 공동체적 삶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할 문제이다.⁶⁸⁾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두었을 때 공감의 개념을 이 글에서와 같이 정의하는 일은 곧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삶의 조화를 피하도록 하는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공감에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자의 존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물론 공감 현상과 행위 자체가 결국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행위로서 주체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타자를 인정하여 받아들이고자 하는 정신적 태도의 최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감은 다원화, 개인화되어 가는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공감'의 개념이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명제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 글을 계기로 공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더욱 확산되어 공감의 개념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발전된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공감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 《조선왕조실록》 성종 6년(1475) 2월 8일(丁亥).
- 《조선왕조실록》 중종 5년(1510) 1월 24일(辛巳).
- 《조선왕조실록》 중종 10년(1515) 11월 25일(丁未).
- 《조선왕조실록》 선조 28년(1595) 10월 1일(庚子).

68) 이러한 맥락에서 찰스 테일러(C. Taylor)는 개인주의가 현대 사회의 불안 요인 중 하나이며, “개개인들에게 삶의 형태의 선택을 ‘허용하는 사회(permissive society)’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물들, ‘자기중심적인 세대(me generation)’의 행위들, ‘자기도취(narcissism)’의 만연” 등으로 인해 “개개인들의 삶의 지평들이 [높낮이 없이] 덩그러니되고 협소해졌으며, 그 결과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일(self-absorption)”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찰스 테일러, 송영배 옮김,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2001, p.13.)

《조선왕조실록》 고종 즉위년(1863) 12월 13일(乙酉).

《조선왕조실록》 고종 16년(1879) 7월 17일(己丑).

2. 학술논문

김경진, 《시적 공감 과정의 학년별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김윤상, 〈몸 담론의 미학적 기초로서 감정이입〉, 《독일문학》, Vol.122, 한국독어독문학회, 2012, pp.53-73.

김효정, 《문학 수용에서의 공감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7.

문아람, 《이해 공감적 문학교육을 위한 교수방안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4.

반피득(Peter van Lierop), 〈Empathy And Its Unique Function In Counseling In Christian Service〉, 《신학논단》, Vol.4,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58, pp.91-98.

윤석현, 김언주, 〈감정 지능의 의미와 측정〉, 《교육심리학연구》 Vol.10, No.3, 한국교육심리학회, 1996, pp.183-204.

이영재, 〈현대공감이론을 통한 공맹철학의 재조명〉,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413-445.

이은영, 〈립스 감정이입론에 대한 에디트 슈타인의 논쟁〉,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36, 한국현상학회, 2006, pp.101-129.

이창우, 〈도덕발달의 심리적 과정〉, 《인문과학》, Vo.5,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1976, pp.75-92.

최기숙, 〈조선시대 감정론의 추이와 감정의 문화 규약〉, 《동방학지》, Vol. 15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pp.3-52.

Altmann, R. W., Hume on Sympathy, Tweyman, S.(Ed.), *David Hume: critical assessments*, Routledge, 1995.

Chismar, D., Empathy and Sympathy: The Important Difference,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22, 1998, pp.257-266.

Darwall, S., Empathy, Sympathy and care, *Philosophical Studies*, Vol.89, 1998, pp.261-282.

Jahoda, G., Theodor Lipps and the Shift from "Sympathy" to "Empathy",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Vol.41(2), 2005, pp.151-163.

Karl Aschenbrenner&Arnold Isenberg Ed., *Aesthetic Theorie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Ar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5.

Koss, Juliet(2006), On the Limits of empathy, *The Art Bulletin*, Vol.88, No.1, pp.139-157.

Wispé, L.,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 No. 2, 1986, pp.314-321.

3. 논저

데이비드 흄, 김성숙 옮김,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서문화사, 2009.

막스 셸러, 이을상 옮김,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막스 셸러, 조정옥 옮김,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아카넷, 2006.

메리 고든, 문희경 옮김, 《공감의 뿌리》, 산티, 2010.

문세영, 《조선어사전》, 박문서관, 1938.

아담 스미스, 박세일·민경국 옮김, 《도덕감정론》, 비봉출판사, 2009.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앙드레 콩트-스푹빌, 조한경 옮김, 《미덕이란 무엇인가》, 까치, 2012.

요하임 바우어, 이미옥 옮김, 《공감의 심리학》, 에코리브로, 2006.

이리나 프레쿱, 신흥민 옮김, 《감정이입》, 큰나무, 2008.2

제레미 리프킨(Rifkin, Jeremy), 이경남 옮김,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찰스 테일러, 송영배 옮김,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2001.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서해문집, 201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황호덕·이상현 편, 《한국어의 근대와 이중어사전》 2, 3, 4권, 박문사, 2012.

「공감의 재개념화와 현대사회에서의 의미」에 대한 토론

김학찬 / 극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이 논문은 공감의 개념에 대해 다양한 층위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공감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sympathy와 empathy의 의미와 그 차이는 무엇인지, 나아가 공감을 재개념화 할 때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지, 관련된 철학과 미학, 심리학의 논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며 공감의 개념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정교화 한 공감의 개념은 보다 보편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고 나니, 논문에서 사용된 공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곧 공감의 능력을 기르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 전염, 감정이입 등의 용어와 공감을 구분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1. 서론의 공감에 대한 설명 중 “개인과 평등의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인의 친(親)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밝히기 위한 개념”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일과 평등의 관계는 공감 속에 내재된 성질로 보입니다. 그런데 ①공감의 개념 에서 6째 번 단락의 “이성과 감정의 동시적 작용을 의미한다는 것은 근대적 의미의 평등한 개인을 ‘발견’” (강조는 인용자)에서는 이성과 감정의 동시 작용이 곧 공감으로 보이며, 공감이 평등을 도출해낸 것 같습니다. 공감과 평등 모두 기존에 있었으나 다시 ‘발견’ 되었다고 이해되는데, 두 용어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2. 발표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4. 공감의 개념과 형성단계’ 였습니다. 4번에 따르면 공감과 연민, 감정이입이나 감정 전염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형성을 감정 전염과 감정합일, 뒤따라 느낌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 에 따른 것일까요? 단계에 대한 구분은 조건에 따라 나뉘는 듯합니다. 주제, 대상, 윤리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궁금합니다. 또는 그 단계를 지났음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을까요? 물론 이 논문의 목적은 조건의 측면에서 공감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논문입니다. 혹, 문학교육의 현장에서 공감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의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3. 공감의 형성단계는 공감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령, 자아가 예술작품의 세계로 옮겨가면서 자아를 상실하게 되는 자기소외의 개념 등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감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 곧 잘못된 공감에 대해 환기시키는 바도 큼니다.

〈그림〉 ‘공감과 주변개념 간의 관계’는 논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은 감정이입이나 동일시의 상위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하위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치에 놓아야 할까요? 〈그림〉의 제목이 ‘공감과 주변개념 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발표자께서는 이 〈그림〉이 단계나 과정으로만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입장에서는 위계에 대한 궁금증과 용어들의 자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공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더 많고 까다롭다는 점, 감정 전염, 감정 합일, 뒤따라 느낌은 공감의 기본 요소라는 점, 〈그림〉이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계단 모습이라는 점에서 공감은 다른 주변개념들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감이 감정 전염의 일부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공감은 뒤따라 느낌보다 면적이 작고, 뒤따라 느낌의 토대를 필요로 하는데, 아래에 위치한 단계들이 위 단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감은 감정 전염보다 더 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위 개념인 공감이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지, 반대로 하위 개념인 감정 전염에 공감이 포함되는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림〉에서 X, Y축이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것이 토론자의 오독일 수도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관계 대신 강박적으로 개념의 위계에 집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위단계·상위단계와 포함관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과 다른 단계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ffectual and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South Korean Older People*

Seung-Min Park**

< Abstract >

Many studies showed that the degree of depression of older peopl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However, they cannot show the specific relations how th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ffects the extent of old-age depression. In total 2,917 older people extracted from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ere analysed to account for the limi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ffectual solidarity and structural solidarity mediates and moderates, respectively,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the level of depression of older people. Our analyses suggest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oretically, the old associational solidarity model should be re-designed by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Practically, there are two meaningful ways of alleviating the degree of old-age depression together with more frequent contact by communication channels. As adult children not only share more positive emotional attachment with their older parents but also live closer to their older parents, the possibility of decreasing depression condition will increase. However, our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limitations in

*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25 April 2015,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 Visiting Professor, Sol Faculty of General Education and Liberal Arts, Woosong University, South Korea; E-mail: 31415park@naver.com

that the sample was only for South Korea and other three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ies (functional solidarity, consensual solidarity, and normative solidarity) were not included owing to the data limitation.

Key Words: Associational Solidarity, Affectual Solidarity, Structural Solidarity, Depression,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 Research Background

People experience many changes not only in clinical but also social roles during their life course. In particular, the complexities of old age condition deepen the effect of changes (Pachana and Laidlaw, 2014). Among them, mental disorder in later life is a very serious gerontological problem worldwide (WHO, 2013).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ld-age mental syndrome due to it lessens not only physical mobility (Braam et al., 2005) but also positive emotions (Zhang and Li, 2011). The depression also increases the feeling of worthless (Strawbridge et al., 2002), loneliness (Singh and Misra, 2009), the intention of committing a suicide (Grek, 2007; Conwell, Duberstein, and Caine, 2002), and the risk of death (Bruce et al., 1998).

Among many determinants of depression of older people, family re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depression (Coleman et al., 2011; Segrin, 2011; Vandeleur, Jeanpretre, and Perrez, 2009; Taylor and Lynch, 2004; Oxman et al., 1992). There is no doubt that positiv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s a family support helps buffering the negative elements which increasing the level of stress and loneliness (Bozo, Toksabay, and Kurum, 2009; Blixen and Kippes, 2007; Arthur, 2006; Schaefer, Coyne, and Lazarus, 2004; Oxman and Hull, 2001). For example, Reviski and Mitchell (1990) reported that the more frequent contact (i.e. associational solidar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by analyzing 240 older people aged 65 and over sampled from a hospital in Pitt County, North Carolin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milarly, Chi and Chou (2001) reported that the more frequent contact with children, the less level of depression of older people by analyzing 1,106 Chinese people aged 60 and over. Siu and Phillips (2002) analyzed 60 female older

people aged 60 to 85 and found that positive family relationship (i.e. affectual solidarity) decreases the depression condition of older people. Silverstein, Cong, and Li (2006)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ffectual solidarity of older people with adult children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of older parents by using 1,561 older people aged 60 and over sampled from Anhui Province in China. They found that older parents who had stronger affectual solidarity with their adult children are less likely depressed than those who had weaker affectual solidarity with their adult children.

However, we still do not know the specific relations how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degree of depression of people in later life. Thus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 the research gap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country, in particular, is the meaningful case for the research ques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 For instance, the extent of filial piety value for parents based on the Confucianism had been significantly decreasing since the rapid industrialization. Moreover, the country is located at the top rank of the statistics that a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pression such as the index of ageing, the velocity of population ageing, the rate of committing a suicide among older people, and the rate of old-age poverty (OECD, 2014; WHO, 2014;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II. Method

1. Data and Sample

This research exploits the thir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hich was conducted in 2010 in South Korea. 2,917 older people aged 65 and over (older women=1,694, older men=1,223) were extracted after data cleaning for this research.

2. Measures

2.1.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Status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status include age, gender, marital status, religiosity,

education, total amount of income, and employment. Age is measured by continuous numbers from 65 years and over. Gender is coded a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older women as 1. Marital condition is measured by married, separate living, divorced, and bereaved. Religiosity is measured by irreligious, Protestant, Catholic, Buddhism, and Won Buddhism. The level of education is measured by four ranks, i.e. under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over university education. Income is evaluated by five intervals based on 10 million won. Finally, employment condition is coded a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employed as 1.

2.2.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mong six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ies,¹⁾ this research focuses on three indicators including associational solidarity, affectual solidarity, and structural solidarity. More specifically, associational solidarity is measured by the frequency of contacting via communication channels such as telephone or (E)mail by asking ‘How often have you contacted with your children by phone or (E)mail?’ The variable is operationalized from 1 (at least once a week) to 4 (almost never a year). Affectual solidarity is assessed by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by asking ‘How much satisfied are you with the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It is coded as ten-point likert scale from 0 (never) to 100 (very satisfied). Finally, structural solidarity is measured by the geographical proximity by a public transportation, i.e. within 30 minutes, within 1 hour, within 2 hours, and more than 2 hours.

2.3. Depression

There are diverse tools of measuring depression conditions such as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designed by Goldberg (1972), Kessler Psychological Distress Scale (K10) developed by Kessler and Mroczek (1994), an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Scale) designed by Radloff (1977). Among the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dopts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1) Six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ies are associational solidarity, affectual solidarity, structural solidarity, functional solidarity, normative solidarity, and consensual solidarity (Bengtson and Schrader, 1982; McChesney and Bengtson, 1988; Silverstein, Bengtson, and Lawton, 1997; Giarrusso et al., 2005).

Scale (CES-D Scale) to measure the depression condition. CES-D Scale was designed to measure the depression condition rather than clinical depression of general people in the community with emphasizing cognitive and affective element as well as general depressive mood (Radloff, 1977).

Although the original CES-D Scale usually contains 20 specific indicato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used the summarized version which is translated into Korean. The Korean version of CES-D 10 has been validated by many previous studies (Cho, Nam, and Suh, 1998; Noh, Avison, and Kaspar, 1992). It contains 10 specific indicators encompassing losing interests in doing something, having difficulty in concentrating, generally feeling depressed, losing energy and feeling tired, feeling well, feeling afraid, having difficulty in sleeping, feeling non-grievance, feeling lonely, and feeling worthles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questionnaire asked respondents how they felt each feeling during last week. These are all measured by four-point scored Likert-scale, i.e. 1 = almost never (less than one day), 2 = sometimes (one or two days), 3 = often (three or four days), and 4 = always (five or seven days). Among them, two variables, i.e. feeling well and feeling non-grievance were negatively recoded to unify the direction of the measurement with others. Particularly,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rovides the CES-D 10 Score to evaluate the degree of depression condition. It marks from 0 to 3 score to each measurement, i.e. almost never = 0, sometimes = 1, often = 2, and always = 3 so that the higher score means the higher level of depressive condition.

III.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ample

1.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Status of Older Parents

As the table 1 shows, there were more older women (1,694) than older men (1,223). Around 88.5 per cent of older men were married whilst 44.8 per cent of older women married. The majority of older people were irreligious. Buddhism was the major belief system followed by the Protestantism in both genders. There was a noticeable gender difference in socio-economic status. For example, regarding the education level, around seven times more older men (12.4 per cent) finished tertiary education than older

women (1.7 per cent). On the contrary, more older women (83.1 per cent) finished elementary school education than older men (46.7 per cent). Over ten times more older men (3.5 per cent) earned more than 40 million won than older women (0.3 per cent) whilst more older women (82.2. per cent) earned less than 10 million won than older men (67.3 per cent). More than twice older men (36.9 per cent) were employed than older women (17.6 per cent).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Economic Status of Older People by Gender

		Older Women (N=1,694)		Older Men (N=1,223)	
		Frequency	%	Frequency	%
Age	65-74	900	53.1	691	56.5
	75 over	794	46.9	532	43.5
Marriage	Married	759	44.8	1082	88.5
	Separate Living	10	0.6	9	0.7
	Divorced	9	0.5	13	1.1
	Bereaved or Dispersed	916	54.1	119	9.7
Religion	None	710	41.9	730	59.7
	Protestant	354	20.9	202	15.9
	Catholic	171	10.1	86	7
	Buddhism	440	26	195	16.5
	Won Buddhism	9	0.5	3	0.2
	Others	10	0.6	7	0.6
Education	Under Elementary School	1,407	83.1	571	46.7
	Middle School	147	8.7	207	16.9
	High School	111	6.6	293	24
	Over University	29	1.7	152	12.4
Income	0-10,000,000	1,392	82.2	823	67.3
	10,000,001-20,000,000	249	14.7	262	21.4
	20,000,001-30,000,000	38	2.2	61	5
	30,000,001-40,000,000	10	0.6	34	2.8
	Over 40,000,001	5	0.3	43	3.5
Employment	Yes	298	17.6	451	36.9
	No	1,396	82.4	772	63.1

2. Intergenerational Solidaritie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s table 2 illustrates, the biggest rate of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of older parents was contacting at least once a week. In other words, the rates of the frequency of contacting with adult children via communication channels at least once a week of older women and men were 40.7 per cent and 53.9 per cent, respectively. The biggest rate of the structural solidarity of older parents was within one hour by public transport. That is, the rates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with adult children within one hour by public transport of older women and men were 23.4 per cent and 24.8 per cent, respectively. Regarding the affectual solidarity, 14 older women and 7 older men answered that their degree of affectual solidarity was nil but 46 older women and 39 older men answered that their affectual solidarity was perfect. In addition, the mean of affectual solidarity of older women was around 66 and that of older men was about 68.

Table 2.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by Gender

		Older Women (N=1,694)		Older Men (N=1,223)	
		Frequency	%	Frequency	%
Associational Solidarity	at least once a week	858	40.7	659	53.9
	at least once a month	658	38.9	458	37.5
	at least twice a year	158	9.4	97	8
	almost never a year	179	10.6	101	8.2
Structural Solidarity	within 30 minutes by public transport	350	20.7	250	20.4
	within 1 hour by public transport	397	23.4	303	24.8
	within 2 hours by public transport	390	23	267	21.8
	more than 2 hours by public transport	557	32.9	403	33
Affectual Solidarity	0	14	0.8	7	0.6
	10	12	0.7	10	0.8
	20	34	2	8	0.7

	30	68	4	37	3
	40	65	3.8	46	3.8
	50	233	13.8	144	11.8
	60	240	14.2	170	13.9
	70	412	24.3	300	24.5
	80	423	25	334	27.3
	90	147	8.7	128	10.5
	100	46	2.7	39	3.2
	Mean/SD	66.12/18.8			68.48/17.69

3. Depression of Older People

Table 3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depression in later life by gender, which shows a transparent gender difference between older men and women. For example, around 33.7 – 69.5 per cent and 50 – 71 per cent of older men and women, respectively, experienced depression except in a sub-dimension, i.e. feeling well. The gender difference of South Korean older people is consistent with Western studies. In other words, many studies reported that women suffer more from depression than men (Fauth et al., 2011; Yang and George, 2005; Taylor and Lynch, 2004; Palsson, Ostling, and Skoog, 2001; Diener, 1984). However, the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with a limitation due to the fact that women generally are more open to expressing their feelings than men and consequently report emotions more intensely (Diener, Sandvik, and Larsen, 1985).

Table 3. Depression of Older People by Gender

		Losing interest in doing something		Having difficulty in concentrating		Generally feeling depressed		Losing energy and feeling tired		Feeling well	
		F	%	F	%	F	%	F	%	F	%
Older Women	Almost never	824	48.6	807	47.6	813	48	693	40.9	402	23.7
	Sometimes	547	32.3	542	32	549	32.4	598	35.3	516	30.5
	Often	272	16.1	298	17.6	274	16.2	306	18.1	498	29.4
	Always	51	3	47	2.8	58	3.4	97	5.7	278	16.4
Older Men	Almost never	698	57.1	732	59.9	714	58.4	658	53.8	318	26
	Sometimes	371	30.3	337	27.6	356	29.1	379	31	341	27.9
	Often	136	11.1	128	10.5	129	10.5	148	12.1	303	24.8
	Always	18	1.5	26	2.1	24	2	38	3.1	261	21.3
		Feeling afraid		Having difficulty in sleeping		Feeling non-grievance		Feeling lonely		Feeling worthless	
		F	%	F	%	F	%	F	%	F	%

Older Women	Almost never	847	50	761	44.9	491	29	789	46.6	806	47.6
	Sometimes	545	32.2	571	33.7	547	32.3	583	34.4	575	33.9
	Often	246	14.5	286	16.9	394	23.3	241	14.2	233	13.8
	Always	56	3.3	76	4.5	262	15.5	81	4.8	80	4.7
Older Men	Almost never	738	60.3	644	52.7	373	30.5	683	55.8	708	57.9
	Sometimes	341	27.9	390	31.9	342	28	395	32.3	381	31.2
	Often	121	9.9	139	11.4	268	21.9	116	9.5	104	8.5
	Always	23	1.9	50	4.1	240	19.6	29	2.4	30	2.5
		Female					Male				
		F		%		F		%			
CES-D 10 Score	0	198		11.7		225		18.4			
	1	117		6.9		83		6.8			
	2	221		13		204		16.7			
	3	113		6.7		86		7			
	4	124		7.3		89		7.3			
	5	121		7.1		84		6.9			
	6	132		7.8		98		8			
	7	166		9.8		97		7.9			
	8	399		23.6		217		17.7			
	9	70		4.1		28		2.3			
10	33		1.9		12		1				

*Note: F (Frequency), N (Female=1,694, Male=1,223)

IV.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Geographical Proxim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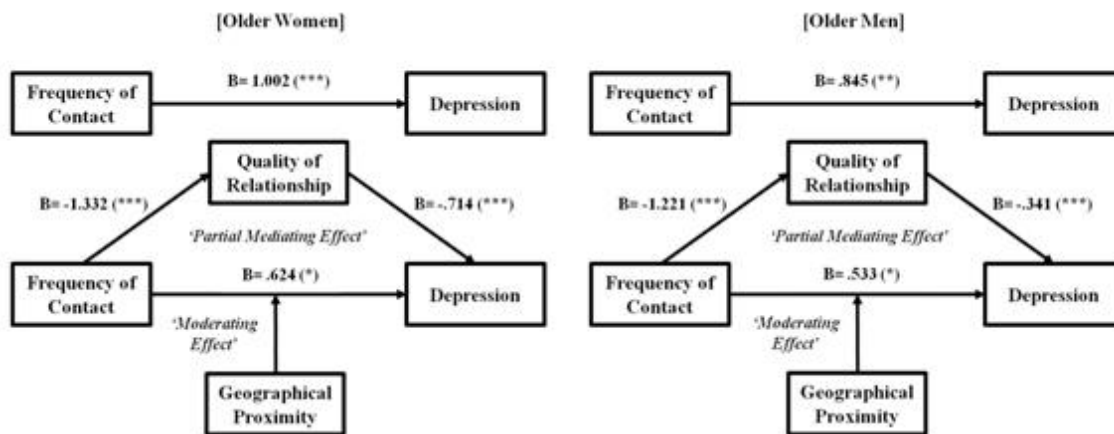
Our analyses of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show that the affectual solidarity (i.e. the quality of relationship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nd the structural solidarity (i.e. the geographical proximity with adult children by a public transport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the extent of depression in later life. In other words, the quality of relationship highly positively mediate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of both older women and men. This means that the frequency of the contact via communication channels with adult children positively affects the degree of depression of both older women and men through the extent of the positive quality of relationship as a mediator. Therefore, one can argue that the positive quality of relationship plays a partially key role on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ith maintaining the effect that the more frequent contact with the adult children via communication channels can significantly

lessen the level of depression in later life.

A lot of studies reported the similar evidence that the quality of contact is the potential elemen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ntity of contact and the condition of mental health. For example, Ward, Barnes, and Gahagan (2012) found that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s significantly impacts on well-being. Similarly, The Royal Society (2012), Swartz (2009), Fredrickson (2001), Hogan and Eggebeen (1995), and Rossi and Rossi (1990) found that emotional closeness is the most common and basic type of inter-connectednes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stronger emotional closeness yields more positiv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Moreover, Vandeleur, Jeanpretre, and Perrez (2009), Pinquart and Sorensen (2000), Victor and colleagues (2000), Ingersoll-Dayton, Morgan, and Antonucci (1997), Headey and Wearing (1992), Rook and Pietromonaco (1987), and Bradburn (1969) reported that contact through indirectcommunication channels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well-being when the contact is exchanged among those who do not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hereas contac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sons' well-being when actor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Meanwhile, the geographical proximity positively moderate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the level of depression of older women and men. In other words, the level of depression of older women and men is moderated by the geographical proximity with adult children (older women: $B = .432$, $\Delta R^2 = .012$, $p < .05$; older men: $B = .313$, $\Delta R^2 = .009$, $p < .05$). This means that the closer geographical proximity positively moderates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contact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of both older women and men.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the many previous studies on this relationship but Gabriel and Bowling (2004) provide the similar result with ours. In other words, they found that if adult children live far away from their older parents, they are more likely to contact via communication channels. Consequently, the analysis reflects that the geographical distance with adult children is also the critical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adult children via communication channels and the depression of both older women and men.

Figure 1.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by Gender



Note: * $P < .05$, ** $P < .01$, *** $P < .001$

V. Conclus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research gap in that there was no empirical study accounting for the specific mechanism amo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ies and the level of depression in later life. In total 2,917 older people aged 65 and over extracted from the third round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of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t only mediating effect of the affectual solidarity but also moderating effect of the structural solidar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the degree of depression of both older women and men. Finding the specific empirical evidences suggest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oretical implication is that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is not the only significant factor which determines the degree of depression in later life. In other words,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contact via communication channels significantly determines the level of depression both of older women and men together with the affectual solidarity (i.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structural solidarity in terms of the geographical proximity with adult children by a public transportation. This means that the conventional associational solidarity perspective

should be revised by adding two potential factors that presented their importance duri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analyses.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associational solidarity model should be re-designed by synthesizing the effects of the quality of relationship and the geographical proximity by a public transportation.

The practical implication is about the practices for alleviating the depression condition in later life. In other words, the possibility for decreasing the extent of depression of older parents will increase if adult children share more positive emotional attachment with their older parents. Similarly, as adult children live closer to their older parents geographically, the less possibility of being depressed in later life.

However,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limitations in that the sample for this research was for South Korea. Further researches by using data encompassing diverse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whether the mediating effect of affectual solidar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old-age depression are valid worldwide. Moreover, the research only verified the specific relations among associational solidarity, affectual solidarity, structural solidarity,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This means that further studies on the relations among not included dimensions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e. functional solidarity, consensual solidarity, and normative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older people.

References

- Arthur, HM. (2006) "Depression, Isolation,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Older Adults",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21: 2-7.
- Blixen, CE., Kippes, C. (2007)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1: 221-226.
- Bozo, O., Toksabay, NE., Kürüm, O. (2009)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ly Turkish People", *Journal of Psychology* 143(2): 193-205.
- Braam, AW., Prince, MJ., Beekman, AT., Delespaul, P., Dewey, ME., Geerlings, SW., Kivela, SL., Lawlor, BA., Magnusson, H., Meller, I., Pérès, K., Reischies, FM., Roelands, M., Schoevers, RA., Saz, P., Skoog, I., Turrina, C., Versporten, A., Copelan, JR. (2005) "Physical Health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Europeans: Results from

- EURODEP”,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7: 35-42.
- Bradburn, N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Publishing.
- Bruce, ML., Seeman, TE., Merrill, SS., Blazer, DG. (1994) “The Impact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on Physical Disability: MacArthur Studies of Successful Ag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 1769-1799.
- Chi, I., Chou, K-L. (2001)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Chinese People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Human Development* 52(3): 231-252.
- Cho, MJ., Nam, JJ., Suh, GH. (1998) “Prevalence of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ationwide Sample of Korean Adults”, *Psychiatry Research* 81(3): 341-352.
- Coleman, PG., Carare, RO., Petrov, I., Forbes, E., Saigal, A., Spreadbury, JH., Yap, A., Kendrick, T. (2011) “Spiritual Belief, Social Support, Physic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Among Older People in Bulgaria and Romania”, *Ageing and Mental Health* 15(3): 327-333.
- Conwell, Y., Duberstein, PR., Caine, ED. (2002) “Risk Factors for Suicide in Later Life”, *Biological Psychiatry* 52(3): 193-204.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andvik, E., Larsen, RJ. (1985) “Age and Sex Effects for Emotional Inten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542-546.
- Fauth, EB., Gerstorf, D., Ram, N., Malmberg, B. (2011) “Changes in Depressive Symptoms in the Context of Disablement Processes: Role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gnitive Function,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published online August 6, 2011, doi:10.1093/geronb/gbr078.
- Fredrickson, B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Gabriel, Z., Bowling, A.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Older People”, *Ageing and Society* 24(5): 675-691.
- Goldberg, D.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rek, A. (2007) “Clinical Management of Suicidality in the Elderly: An Opportunity for Involvement in the Lives of Older Pati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2(6): 47-57.
- Headey, B., Wearing, A.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Melbourne: Longman Cheshire.
- Hogan, D., Eggebeen, D. (1995) “Sources of Emergency Help and Routine Assistance in Old Age”, *Social Forces* 73(3): 917-936.

- Ingersoll-Dayton, B., Morgan, D., Antonucci, T. (1997)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Exchanges on Ageing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B(4): S190-S199.
- Kessler, RC., Mroczek, D. (1994) "An Update on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 Screening Scales for the 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cales", Research Paper, Ann Arbo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urve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Michigan.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4) *Statistics on Family*, Daejeon: Statistics Korea.
- Noh, S., Avison, WR., Kaspar, V. (1992)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84-91.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Making Mental Health Count: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Neglecting Mental Health Care*, Paris: OECD.
- Oxman, TE., Berkman, LF., Kasl, S., Freeman, DH., Barrett, J. (1992)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35(4): 356-368.
- Oxman, TE., Hull, JG. (2001) "Social Support and Treatment Response in Older Depressed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6B(1): P35-P45.
- Pachana, NA., Laidlaw, K. (Ed) (2014) *The Oxford Handbook of Clinical Gero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sson, SP., Ostling, S., Skoog, I. (2001) "The Incidence of First-onset Depression in a Population Followed From the Age of 70 to 85", *Psychological Medicine* 31(7): 1159-1168.
- Pinquart, M., Sorense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2): 187-224.
- Radloff, L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viski, DA., Mitchell, JP. (1990) "Strai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Rural Elderly Individual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5(6): S267-S274.
- Rook, KS., Pietromonaco, P. (1987) "Close Relationships: Ties That Heal or Ties That Bind?" in Jones, WH., Perlman, D. (E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Greenwich: JAI Press, pp1-35.
- Rossi, AS., Rossi, P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chaefer, C., Coyne, J.C., Lazarus, R.S. (2004) "The Health-relate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ural Medicine* 4: 381-406.
- Segrin, C. (2011) "Depressive Disorder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in Horowitz, L.M., Strack, S. (Ed)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New Jersey: John Wiley and Sons, pp425-448.
- Silverstein, M., Cong, Z., Li, S. (2006)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eople in Rural China: Consequence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1B(5): S256-S266.
- Singh, A., Misra, N. (2009) "Loneliness, Depression and Sociability in Old Age", *Industrial Psychiatry Journal* 18(1): 51-55.
- Siu, O.L., Phillips, D.R. (2002) "A Study of Family Support, Friend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Women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Human Development* 55(4): 299-319.
- Strawbridge, W.J., Deleger, S., Roberts, R.E., Kaplan, G.A. (2002) "Physical Activity Reduces the Risk of Subsequent Depression for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6(4): 328-334.
- Swartz, T.T. (2009)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Adulthood: Patterns, Var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191-212.
- Taylor, M.G., Lynch, S.M. (2004) "Trajectories of Impairment, Social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9B(4): S238-S246.
- The Royal Society (2012) *People and the Planet*, London: The Royal Society.
- Vandeleur, C.L., Jeanpretre, N., Perrez, M. (2009) "Cohesion, Satisfaction with Family Bonds, and Emotional Well-Being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5): 1205-1219.
- Victor, C., Scambler, S., Bond, J., Bowling, A. (2000) "Being Alone in Later Life: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Living Alon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0: 407-417.
- Ward, L., Barnes, M., Gahagan, B. (2012) "Well-being in Old Age: Findings from Participatory Research", Brighton and Hove: Age UK.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Geneva: WHO.
- WHO. (2013)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 Geneva: WHO.
- Yang, Y., George, L.K. (2005) "Functional Disability, Disability Transi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Life”, *Journal of Ageing and Health* 17(3): 263-292.

Zhang, B., Li, J. (2011) “Gender and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Elderly Adults: The Roles of Family Support and Friend Support”, *Ageing and Mental Health* 15(7): 844-854.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Affectual and Structural Solidarity in the Relation between the Associational Solidarity and Depression of South Korean Older People」에 대한 토론

이소영 /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승민 교수의 논문은 세대 간 연대성이 노인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그 동안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그 동안 세대 간 연대성이 노인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세대 간 연대성 각각이 어떻게 노인의 우울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대해서는 연구가 일천했다.

Bengtson의 세대 간 연대성에 관한 6가지 차원들 중에서 박승민 교수는 특히 세 가지, Associational, Affectual, Structural Solidarity와 노인 우울증 간의 관계를 한국의 고령화 패널 3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필자 생각에는 박승민 교수의 논문이 다음의 네 가지 점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 학문적 기여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Bengtson의 여섯 가지 세대 간 연대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제외된 Normative, Functional, Consensual Solidarity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분석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이라 설정하고 데이터 클리닝을 했는데, 노인의 기준을 60세 혹은 70세 이상으로 변경했을 때 연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 자녀와 동거를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그룹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 고령화패널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의 자료부터 풀링하여 종단 연구를 하였다면 과연 시간에 따라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자유발표

▣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설 <태백산맥>

/ 박보영(극동대)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설 〈태백산맥〉

박보영*

I. 머리말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의 책, 한국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대학 신입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문학성도 있으면서 잘 팔리는 책, ……” 문학작품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작품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이 작품에 대해 여기까지 언급하면 한국인은 누구나 ‘태백산맥 아니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태백산맥』은 기존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대중소설이 베스트셀러로서의 성공과 더불어 이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기란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태백산맥』의 성공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고 넘기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간에 보여주었던 반향을 보건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점들이 상당부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특히 예술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필자는 소설 『태백산맥』을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태백산맥』에 대한 문학적 분석과 문학 외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이 어떠한 사회적 기제를 통해 지금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socpol@naver.com

II. 내적 관점에서 본 소설 『태백산맥』 : 작품에 내재된 사회적 의미 분석

1. 『태백산맥』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

소설 『태백산맥』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흔히 ‘민족사의 매몰시대’, ‘현대사의 실종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시대가 그만큼 치열했고 격량이 심했으며, 또한 민족분단사 속에서 그만큼 왜곡과 굴절이 심했음을 의미한다. 『태백산맥』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흥미했던 시대의 중심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그 시대를 다루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매몰된 한국 현대사의 한 부분에 대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대정신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점은 조정래가 쓴 ‘작가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나는 작가생활을 시작한 이후 「청산대», 「황토», 「유형(流刑)의 땅», 「불놀이」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수난과 아픔을 쓰고자 했다. 그러나 내 의식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고 가셔지지 않았다. 의문과 회의와 질문이 많았던 때문일 것이다. 그것들을 울울이 간추리고 엮어 베를 짜기로 한 것이 『太白山脈』이다. 그 베는 소수인의 치장을 위한 비단이 아니라 다수인의 삶을 감싸는 삼베나 광목이어야 했다. 민족 분단의 삶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 민중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자 하는 베짜기 작업이 어떻게 종합되고 통일을 이루어, 잘려진 太白山脈의 허리를 잇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 짐을 나는 지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허리 잇기’ 염원이 언제인가는 성취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동반자 없는 등반을 계속해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분단된 삶을 통찰함에 있어서 일천구백사십팔년 시월 십구일에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은 분단비극의 시발점으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太白山脈』은 바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얼마나 역사의 소금을 뿌렸으며, 객관의 현미경으로 살폈는지 염려스러울 뿐이다.¹⁾

이에 대해 문학평론가인 권영민 교수는 다음과 같은 평을 하고 있다. 소설 『태백산맥』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도전이다. 식민지 시대에서 민족해방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순간과 민족 분단에서 625전쟁으로 내몰린 혼란의 시대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작가의 눈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는 점은 과거 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기록될 만하다.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1) 조정래, 『太白山脈(제1권) : 제1부恨의 모닥불』, 해냄, 1996, pp. 6-7.

본질적인 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욕도 현실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가 궁극적으로 민족 분단의 극복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민족 통합의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태백산맥』의 정신이 바로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소설 『태백산맥』은 그러나 우리 문학이 '이윽고' 도달한 목표는 아니다. '비로소' 출발하는 시작일 뿐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민족 분단의 과정이 민족의 내적인 모순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어렵풋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한 작가의 직관에 의해 제시된 것일 뿐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설적 해석이 이른바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태백산맥』은 비로소 그 가능성을 열어 놓기 시작한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고통스런 짐이다. 개개인의 독자는 이 작품의 내용의 진폭을 건지기 위해 자기 삶을 재정립할 필요가 생기며, 우리 문학사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의 진보적인 입장을 포괄하기 위해 문학사적 전망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허리가 잘려나간 민족의식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태백산맥』이 제시하고 있는 정신사의 윤곽을 다시 타진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소설 『태백산맥』이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문학의 80년대적 성과를 뜻하면서도, 90년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하는 출발점에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권영민, 1996: 36-37).

2. 중심인물을 통해 본 『태백산맥』의 사회적 의미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사건의 주동적인 인물들은 아니다. 그들은 주변적인 존재들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만 행동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태백산맥』의 인물들은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념의 단순한 대변자는 아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그들이 스스로 대변하면서 승리로 이끌고자 했던 역사의 흐름과 매우 복잡하게 역동적으로 연관되도록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특수한 개인성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그 개인성의 역사적인 필연성을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권영민, 1996: 128).

전술한 바는 『태백산맥』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된 특질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 두 인물, 예컨대 염상진과 김범우는 『태백산맥』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작품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가장 문제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인물들은 단연 염상진과 김범우라고 할 수 있다.

염상진은 하층민 출신의 좌익 운동가로서 그 신분과 이념 성향이 쉽게 규정된다. 즉 그는 피지

배 계층의 농민 또는 하층민 가운데 좌익 성향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전복시키기 위해 투쟁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삶은 문제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극적이다. 반면, 김범우는 염상진과는 다른 방향에서 주목을 요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주의 아들이면서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그의 성향을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신분적으로는 상층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함과 더불어 민족적인 것의 우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행동형 인간으로서의 염상진과 이념적 인간으로서의 김범우는 확연하게 대비되고 있다. 작가 조정래는 인위적이지 않은,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러한 유형적 대비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형상화한다. 즉 작가는 『태백산맥』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민중의 삶의 문제성을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 형상화함으로써, 그것들이 역사적 문제로 표면화되어 사회계층의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념의 갈등이 초래되었는가? 계급에 대한 자각이란 무엇인가? 무슨 이유로 우리 민족이 적대적인 두 이념적 집단으로 갈라졌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찰의 일환으로, 소설 『태백산맥』은 민족의 내적 모순 속에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이 폭발하여 사회갈등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놓인 행동형 인간(염상진)과 이념적 인간(김범우)이 대비되기도 하고, 각각의 존재가 돋보이기도 한다(권영민, 1996: 144).

Ⅲ. 외적 관점에서 본 소설 『태백산맥』

: 작품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분석

1. 6·25전쟁 전후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태백산맥』

만약 작가 조정래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설 『태백산맥』이 쓰여 질 수 있었을까? 혹은 소설 『태백산맥』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간되었다면 커다란 성공과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 같은 의문들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답변을 할 것이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태백산맥』 같은 소설은 쓰여 지지도, 그리고 쓰여 졌다고 하더라도 큰 성공과 반향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의문들은 『태백산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반드시 한 번쯤 틀어박아야 할 문제들이다. 『태백산맥』은 6·25전쟁(한국전쟁)²⁾ 전후의 역사적 특수성과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소설 『태백산맥』은

2) 사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발발되었던 3년 전쟁을 ‘한국의 내전으로 보느냐’, ‘냉전에

6·25전쟁 전후의 역사적 특수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인 것이다.

그럼 6·25전쟁을 전후한 한국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시대에 대해 역사학자 강만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6·25전쟁 전후한 한국의 상황은 외적상황과 내적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외적으로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마소 양군의 분할점령 상태에 있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서 시작된 일제의 침략주의는 이후 중일전쟁, 미일전쟁, 소일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일제가 패전하면서 한반도지역은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지역이 되었다. 분할점령은 남북 분단국가의 성립으로 연결되었고, 그것은 다시 6·25전쟁으로 이어졌다. 반면, 내적으로는 민족사회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휩싸여 있었다.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 과정에서부터 좌우세력의 대립이 있었고, 식민지시대와 광복 직후 이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전선운동과 그 연장으로서의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분단지향세력들에 의해 분단국가들이 성립되었다(강만길, 1998: 215).

그리고 강만길은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이 역사적으로 혼돈한 시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접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소설 『태백산맥』은 광복 이후 40여년간 벌어진 분단인식의 변화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할 작품이라고 한다. 첫째, 분단인식의 변화과정은 종래의 냉전논리를 극복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내적으로 민족적 각성이 높아지고 외적으로도 국제사회가 냉전시대를 종식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 같은 냉전논리의 후퇴는 자연히 민족문제의 인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특히, 이는 분단과 동족상잔에 직접 책임이 없는 젊은 세대 쪽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민족관의 변화는 당연히 그들의 역사인식을 분단국가주의의 극복과 통일민족주의의 지향으로 이끌어 갔다. 냉전체제와 분단체제에 매몰된 기성세대의 경우 분단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분단과정과 민족상잔의 장으로부터 스스로를 어느 정도 객관적 위치에 둘 수 있게 된 젊은 세대들은 분단국가주의와 통일민족주의를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중앙일보, 1987: 393-394).

2. 『태백산맥』의 성공을 추동한 사회적 기제

소설 『태백산맥』의 성공은 작가 조정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태백산맥』

의한 국제전으로 보느냐'에 따라 용어 선택이 달라진다. 전자의 입장은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후자의 입장은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문학작품으로서 갖는 탁월함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성공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작품자체의 탁월함이나 우수성도 여러 사회적 기제들과 상호작용을 거쳐야만 그 성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외재적으로 봤을 때 소설 『태백산맥』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기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사회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태백산맥』을 톺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르디외가 말한 세 가지 자본, 즉 경제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의 측면에서 『태백산맥』의 성공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쉽게 말해, 이 세 자본이 『태백산맥』의 성공을 어떻게 추동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자본

경제자본이란 금전, 토지, 노동, 수입 등의 경제적 재화의 요소들의 총체이다(현택수, 1998: 110). 소설 『태백산맥』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 경제적 효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언론과 광고는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베스트셀러로서 500만부라는 경이적인 판매부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언론과 광고의 공이 지대했다는 것이다. 『태백산맥』의 시장에서의 경제적 성공은 대중의 뇌리에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남기 위해선 언론과 광고에 의한 직간접적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우선, 언론의 영향력은 『태백산맥』을 둘러싼 일련의 시비와 관련해서 나타난다. 1991년 4월에 공안당국이 소설 『태백산맥』을 판매 금지시키고자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는 곧 <중앙일보>를 필두로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사회면 머리 기사를 장식하였다. 전국 대학가에서 『태백산맥』이 운동권의 교과서처럼 읽히고 있는데다가, 그 내용에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하는 대목도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게 그 요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사가 오히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태백산맥』의 판매부수를 더 높여주었다는 것이다(권영민, 1996: 59-77).

다음으로, 광고의 영향력은 『태백산맥』에 대한 신문광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중앙일간지 광고에 나왔던 『태백산맥』 광고를 보면 통상 “이 땅의 문학사에 커다란 산맥으로 자리매김 된 태백산맥”이라는 식으로 이 작품을 한껏 추어올린다. 마치 『태백산맥』을 읽지 않으면 교양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신문광고에는 “500만부 이상의 초유의 베스트셀러”, “사회적으로 태백산맥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이 소설을 읽지 않고서는 지난 연대와 문학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식의 부제와 광고카피들은 즐비하다. 이런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어서 빨리 『태백산맥』을 구입해 『태백산맥』 신드롬에 동참해야 할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동시대의 트렌드에 완전히 뒤쳐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이 같은 일련의 광고문구들은 분명 『태백산맥』의 신드롬을 확대 재생산했고, 이는 경이적인 판매고로 이어졌다.

2) 문화자본

일반적으로 문화자본은 소장하고 있는 그림과 골동품 등 실제적인 문화재를 통해서, 그리고 학력과 같이 제도화된 기제들을 통해서 표출된다. 그리고 아비투스(Habitus)처럼 비가시적이고 내면화되어 있으며 주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많이 형성된다. 예컨대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 성적을 얻는다는 것은 훌륭한 문화자본의 수혜를 본 결과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력은 문화자본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시에 많은 문화자본이 응축돼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계급간의 불평등 관계는 이른바 '문화자본의 불평등한 배분'에 의해서 야기되고 유지된다(현택수, 1998: 110).

소설 『태백산맥』은 작가 조정래의 개인사에 의해 형성된 문화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작가 조정래가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쓰게 된 모티브는 현대사에서 작가 개인이 겪었던 강렬한 체험들이었다고 한다.

우선, 작가 조정래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여순사건을 몸소 체험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가 여순사건과 연루되어 집안이 한 차례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내가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최초로 인식하게 된 것이 여순사건이다. 내 나이 7살 때 인간과 이념에 대해서 겪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로 통하는 최초의 눈이 되었다.”³⁾

다음으로, 작가 조정래가 4·19세대였다는 사실 역시 이 작품의 또 다른 모티브가 되고 있다. 4·19 혁명 직후 대학에 입학한 조정래는 사회의 그늘진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부터 문학씨클에 가입해서 작가의 꿈을 키워가게 된다. 여기서 그는 학생회 활동과 더불어 민중문학을 접하게 된다. 즉 못 가진 자, 힘없는 자에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워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후일 그가 『태백산맥』을 쓸 때 힘없는 민초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도로 나타난다.⁴⁾

3) 상징자본

상징자본은 의식, 명예, 위신이 사회적 관계 구성에 영향을 줄 때 형성된다. 상징자본은 보이지 않는 상징적 힘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자본의 순기능적 사용을 승인하거나 임의적 사회관계를

3)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제73회(1999.05.02),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의 다섯 가지 성공비결 중 두 번째 성공비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uccess/> (검색일: 2015.04.19)

4)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제73회(1999.05.02),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의 다섯 가지 성공비결 중 첫 번째 성공비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uccess/> (검색일: 2015.04.19)

정당한 관계로 변형시킨다. 이렇듯 실제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낳는 이른바 ‘신용의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징자본은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던 자본의 한 유형이다(현택수, 1998: 110).

소설 『태백산맥』은 문학계 내에서부터 그 가치를 확보해 나가며 상징자본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태백산맥』은 여러 학자나 평론가들에 의해 재평가·재해석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확보해 나아갔다. 이는 『태백산맥』의 의미와 작품분석을 시도한 평서들의 수와 평론가들의 평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표 1>은 그간 『태백산맥』에 관한 대표적 평서들의 목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태백산맥』이 문학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소설 태백산맥에 관한 평서 및 평론들

-
- 김윤식(1986). “우리 문학의 태백산맥,” 『예술과 비평』, 겨울호.
- 김윤식(1987). “태백산맥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서울대 출판부.
- 김윤식(1991). “별교의 사상과 내가 보아온 <태백산맥>,”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이창동·하재봉·남진우·이용범·조정래(1989), “상처받은 시대 그 한과 불꽃의 문학”(좌담), 『문학정신』. 열음사.
- 박명림(1991). “<태백산맥>, ‘80년대’ 그리고 문학과 역사,”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고은(1991). “문학과 역사에 대한 한 고찰,”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권영민(1991). “<태백산맥>의 소설적 성과,”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권영민(1996). 『太白山脈 다시 읽기』. 해냄.
- 이동하(1986). “한국분단소설의 새로운 전진,” 『현대문학』.
- 이동하(1991). “비극적 정조에서 서정적 황홀까지,”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김철(1991). “인물형상화와 가부장적 인간관계의 문제,”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정호웅(1991). “한·불성(佛性)·계몽성,”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이우용(1991). “역사의 소설화 혹은 소설의 역사화,”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손경목(1991). “민중적 진실과 <태백산맥>의 당대성,”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장세진(1991). “분단극복의지로서의 역사인식,” 『문학과 역사와 인간』. 한길사.
-

*자료: 임현영·김재용(1991), 『한국문학명작사전』, 한길사, p. 379.

그리고 『태백산맥』은 ‘한국문단 베스트 30선’이라는 식의 서열화된 평가에서도 언제나 수위를 차지하였다. <표 2>는 『문예중앙』의 특집 ‘해방 50년 한국 문학’ 중 ‘국내 현역 평론가 55명이 선정한 해방 50년 대표 소설 50편 : 장편 소설 50편’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서열화된 평가기제를 통해 『태백산맥』은 더욱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으며, 더불어 그 상징자본 역

시 극대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2〉 국내 현역 평론가 55명이 선정한 해방 50년 대표 소설 50편
: 장편 소설 50편

순위	추천집계	작가명	작품명	발표지면 (혹은 단행본)	최초 발표연도
1	52	박경리	토지	현대문학	1969
2	49	최인훈	광장	새벽	1969
3	45	조정래	태백산맥	한길사	1983
4	37	황석영	장길산	한국일보	1976
5	27	안수길	북간도	춘조사	1959
6	24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지성	1976
7	16	김주영	객주	창작과 비평	1981
8	14	김원일	노을	문학과 지성	1977
9	13	이문열	영웅시대	세계의 문학	1982
		복거일	碑銘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	1987
			⋮		
			⋮		
			이하 생략		

*자료: 『문예중앙』, 1995년 여름호.

IV. 맺음말

어느 사회든 성공이라는 열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의 원인에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통상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내적요인이라면 성공 주체의 부단한 시도와 성취들이 꼽히고, 외적요인은 내적요인과 다른 여러 요인들, 예컨대 그러한 성공을 가능케 한 사회적 상황이나 특수성 같은 것들이 꼽힌다. 주지하다시피 성공은 대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연예계의 스타생산 메커니즘을 보면 연예인의 개인적 재능은 물론 그의 재능을 뒷받침하는 기획사의 적극적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대중의 각광을 받는 스타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학작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다. 천재적인 작가가 쓴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사회적 상황, 문학계의 인정 등 일련의 외적기제들이 없다면 절대 작품자체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소설 『태백산맥』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태백산맥』이 한국사회에서 과거의 커다란 성공과 현재의 명성을 점유할 수 있는 건 이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외적기제들이 작품 자체의 우수성과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즉 『태백산맥』이 갖는 문학작품으로서의 '내적가치'와, 이 작품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외적가치들'이 결합되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같은 예술사회학적 접근은 이미 한국현대문학의 고전반열에 든 『태백산맥』이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의 위치를 잡하게 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도였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조정래(1996). 『太白山脈 : 제1권~제10권』. 해냄.

강만길(1998).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권영민(1996). 『太白山脈 다시 읽기』. 해냄.

『문예중앙』, 1995 여름호.

임현영·김재용 편(1991). 『한국문학명작사전』. 한길사.

중앙일보 편(1987). 『오늘의 역사 오늘의 문학, 제13권: 태백산맥 2』. 중앙일보사.

현택수 편(1998). 『문화와 권력 :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

MBC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제73회(1999.05.02),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의 다섯 가지 성공 비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uccess/> (검색일: 2015.04.19)

「예술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토론

송시형 / 국제사이버대학교 엔터테인먼트학과

1983년에 연재를 시작하여 1989년 첫 출간 된 『태백산맥』은 1990년대까지 끊임없는 이념논란에 휩싸였던 작품이다. 모든 예술이 동시대성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지만 『태백산맥』처럼 동시대성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작품인 경우 예술적 가치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가치를 풍부하게 짚어 볼 수 있게 된다. 이 논문도 『태백산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

글의 구성은 크게 내적외적 관점을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는데 먼저 'II. 내적 관점에서 본 『태백산맥』' 부분에서는 작품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를 골극진 한국현대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풀어내면서 시대정신을 다루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조정래 작가가 쓴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이 '여순사건'부터 '6.25전쟁'까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굵직한 사건과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중심인물을 통해서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고 있는데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작품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염상진과 김범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두 인물의 극 중 성향의 차이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당시의 이념갈등과 계급과 민족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강렬한 캐릭터들의 충돌이 이 작품이 여전히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III. 외적 관점에서 본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작품에 대한 예술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부분의 분석과정에서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 1. 6.25전쟁 전후라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한 『태백산맥』 부분에서 '6.25전쟁 전후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

는데 이 부분은 앞서 분석을 하고 있는 작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 분석과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분석을 앞부분에서 합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태백산맥』의 성공을 추동한 사회적 기제에서 부르디외가 제시한 3가지 자본의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각각의 분석은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제안 할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의 논의의 초점이 다소 작품의 일반적인 성공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속작업에서는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했을 ‘작가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 내용이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이런 분석을 위해 사회학자인 하워드 베커의 논의가 참고 될 수 있을 것 같다. 베커에 의하면 ‘예술은 선견지명이 있는 개인들이 만들어 낸 뛰어난 창조물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관습이 이끄는 실천들의 사회적 배치’라고 논하고 있다. 또 다른 사회학자인 자넷 윌프는 예술 작품이 타고난 천재 개개인의 신적인 영감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창조성’ 개념이 ‘사회적 생산’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논했는데 이런 논의의 중심에는 ‘예술의 창조성 역시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태백산맥』의 경우도 작가가 어린 시절 체험한 역사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각하게 되었고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후속 작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세션

▣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 김태호(고려대 대학원)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김태호*

I. 서론

학력은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사실이다. 권위주의 산업화 시절부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팽배한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학력과 대학입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학력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다루어져 왔고, 나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뉴스는 미디어에 넘쳐나고 사교육비의 증가는 연례행사처럼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학력이 더 이상 사회 이동이 아닌 불평등 양산의 기제로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소 팔아서 명문대에 보내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만들어냈다. 학력을 불평등 재생산의 충실한 기제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기존에 명문대를 졸업한 사회 구성원들의 자식들이 명문대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근거들을 통해 학력 불평등을 이야기하며 그 현황을 분석한다. 단순히 부모의 계급이 자식의 계급으로 재생산된다는 논의와 그 둘 사이에 교육과 학력을 매개변인으로 본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해왔고, 한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다. 교육불평등을 검토한 다양한 연구들은 학력주의가 팽배한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수많은 노력들이 대학입시에 쏟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계급 간 투입 및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방식의 설명에 몰두한다.

교육은 더 이상 신분상승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가 아니다. 대학입학 그 자체는 더 이상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뒤, 명문대 입학에 향한 사회 수준의 열망이 강화됐고, 각 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동원해 자식들을 명문대에 입학 시키고자 노력한다.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지고 수정되어 가는 여러 입시제도들은 단지 입시

*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 andrew.taeho@gmail.com

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증가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 교육은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충실히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로 취급되는 학력주의에 대한,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을 행위자들의 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 좀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학력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상수로 써, 어떤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연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사실로 남아있다. 학력주의를 종속변수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력주의 성향이 고등학생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급 간 차이는 있는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교육불평등에서 중시된 변수들을 활용해서, 부모의 계급적 위치에 따른 초기 학력주의 성향의 정도가 고등학교에서, 교육체계의 평준화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력주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본 뒤, 학력주의리는 설명변수의 탐색을 위해 기존의 교육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한다. 후에는 생애과정의 한 국면으로서의 고등학교 시기가 행위자들에게 제공하는 공간과 경험의 맥락을 연결지어 연구기설을 도출한다.

1. 학력주의 (Credentialism)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당성 담지의 기능을 하는 이데올로기 보다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입시는 매년 사회 수준의 관심, 그리고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과 그들 부모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여타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을 연출해낸다(강준만, 2009). 학력주의는 어느새 입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여겨지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삶의 행복 등을 위협하는 기제로서 이해된다 (황여정, 2008).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누구나 받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제 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 가려고 발버둥치는 일상이 당연시되고 있다(Kim, 2013).

문제는 학력주의가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 정도나 변화량이 검토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육불평등을 다룬 연구들이 학력주의 혹은 학벌주의를 서론에서 한국사회의 시대

를 규정하는 듯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고선 바로 세부적인 계급과 불평등을 연계하는 교육의 작동으로 포커스를 옮겨간다.¹⁾ 이데올로기란, 관념이란 특정 시대에 구속적이고,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처럼 다루어져서는 안된다(McLellan, 1995[2002]: 23).

하지만 이념은, 이데올로기는 결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Mannheim, 1929). 마찬가지로, 행위자들은 구조의 제약들을 무반응적으로 바로 체화하지도 않는다. 부모에게서, 동년배 집단에게서 혹은 노출된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나름 수용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보며 지배적인 논리에 수렴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김용일, 2010; 정상근, 2011). 문제는 그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상정해버릴 경우 올바른 청사진은 그려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이 처한 구조적 제약을 밝힌다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개별 행위자가 지배적인 이념이나 논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온전히 행해질 수 없다.

2. 교육불평등의 메커니즘

교육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계급재생산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 부모의 계급이 자식의 계급으로 재생산되는 양상의 설명에 다양한 변수들이 동원되어왔고, Sewell을 위시한 학자들의, 소위 위스콘신 모델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됐는데(Sewell et al., 1969; Sewell, Haller and Ohlendorf, 1970; Sewell and Hauser, 1972), 이들은 야망, 지적 능력 등의 변수를 사용해서 부모의 계급이 자녀의 계급으로 재생산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성취 지향(achievement orientation)과 성적의 매개효과를 살펴봤다.

그런데, 위스콘신 모델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 계급 간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학력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관심, 그리고 그에 따른 서열화를 어느 정도 정당화했다. 그 교육 기회의 평등은 국가가 제공하는 수준의 것이고, 결국 학력이 가지는 평가자대로서의 가치는 국가 수준의 대학 입시 제도를 통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은, 전체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급 간 교육기회의 격차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김영화, 1992; 김병관, 1999;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2000;

1) 당대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학력주의가 어떻게 제도화 됐는지를 살펴본 이광호(1994)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학력주의의 기원과 발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개별 행위자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성향의 차이로 이어지는 지는 다루지 않았다.

방하남·김기현, 2001, 2002, 2003) 일종의 신화로 이해될 수 있다.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시도한 보다 근래의 논의들은 크게, 문화자본론에 기반 한 설명과 상대적 위험회피의 경향에 기반 한 설명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문화자본 기반 설명 : 계급 변수의 유의미성

부르디외(Bourdieu)의 문화자본론과 아비투스¹⁾를 통한 설명에 기반한 설명들은 기존의 기능주의 교육이론에 대한 사회학적 반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교육이론에 있어서의 이 문화적 전환은 기능주의 교육이론이 교육과정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지배와 갈등을 간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대안으로 문화에 특권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때 문화는 상징 및 의미체계에서 개인적·집단적 동일성을 거쳐 생활양식에 이르는 다양한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Bourdieu에 의하면, 사람들이 특정한 문화와 가치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문화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는 '상징적 폭력'으로 특징지어진다(Bourdieu and Passeron, 1990[1977]; Jenkins, 1992).

동일한 맥락에서 문화연구 집단에서도 문화가 다양한 사회집단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된다. 그런데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지배계급에게 특정한 문화적 가치·규범·동일성·생활양식을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다원성은 파괴되고 문화적 지배라는 현상이 출현한다. 이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헤게모니'로 이해되며, 학교는 이러한 문화적 헤게모니가 생산·재생산되는 공간으로 파악된다(Harris, 1992).

문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재생산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재생산 개념은 이제 객관적 생산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문화가 주관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그리고 문화가 행위자의 경험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문화적 재생산도 행위자의 반복적 행동을 매개로 한다. 예를 들어 Bourdieu는 재생산을 일종의 순환적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그에 따르면 특정한 집단의 문화는 각각의 개인에게 아비투스라는 습관적 행위 유형으로 내면화된다. 개인은 자신의 아비투스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자유히' 선택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문화적 '구조' 2)를 재생산한다(윤종희·박상현, 2005).

문화적 재생산은 경제적 재생산과 구별되는 독자적 논리를 갖는다. Bourdieu는 경제적 자본과

2) 여기서 Bourdieu가 '구조'라고 지칭하는 것은 맑스적 의미의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장(field)으로 지칭되는 제도적 영역을 지칭한다. Bourdieu는 경제적 장·정치적 장·문화적 장 등을 '객관적 구조'라고 지칭하고 그러한 구조가 아비투스라는 '주관적 구조'로 구체화된다(embodied)고 주장한다. 개인은 이러한 구체화된 구조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장이라는 객관적 구조를 재생산한다.

문화적 자본을 구분한다. 그는 계급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의 상이한 문화적 성향·언어·스타일 등을 문화적 자본을 통해 설명한다.³⁾ 계급은 각자가 보유한 자본의 양에 의해 규정되며, 지배 계급은 경제적 자본을 보유한 경제적 부르주아지와 문화적 자본을 보유한 문화적 부르주아지로 나뉜다. 학교는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문화적 자본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에게 지배 계급의 가족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본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자본을 보유한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상이한 계급의 학생은 각자의 아비투스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업 성취를 보이지만 두 집단은 모두 그러한 평가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한다. 학교는 평가를 객관적·중립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학업성취를 개인적 동기와 재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정당화한다(Bourdieu and Passeron, 1990[1977]).

이런 맥락에서 아비투스와 문화자본을 통해 자녀 계급의 재생산을 설명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성취 지향, 성적, 아비투스, 문화자본 등을 통해 계급 재생산을 분석했다.⁴⁾

한국의 경우 특히나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문화자본, 그리고 아버지의 문화자본을 통해 자식이 체화한 아비투스가 학력에 끼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학력과 계급 재생산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취향이나 아비투스(habitus)로서의 문화자본으로 문화를 연구하는 이들은 대체로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문화자본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취향이나 특정 집단의 문화가 계급이나 불평등의 재생산을 공고화함을 논했다. 어떻게 보면 경계를 긋는 독립변수로서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자본이 계급재생산의 기제로 기능하고 사회자본 등이 문화자본의 형성을 돕고 그로 인해 계급과 계층이 나누어진다는 틀을 따르고 있다(DiMaggio, 1982; Aschaffenburg and Mass, 1997; 장미혜, 2002; 조돈문, 2005; 최섯별, 2006; 김현주·이병훈, 2007; 장상수, 2008; 이용관, 2010).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화자본의 개념은 단순히 부모의 예술적 취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자본은 단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기 보다는, 고급문화에 친숙할 수 있는 문화적 성향과 인지적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De Graaf et al., 2000). 계급재생산의 논의에서 학력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그 매개변인에 문화자본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의들은 그 구분에 따라 인지적 능력으로서의 문화자본을 조작화해서 측정했다고 볼 수 있다(De Graff et al., 2000; Sullivan, 2001; Barone, 2006).

3) Bourdieu의 ‘자본’은 광의적 의미의 자본과 무관하다. 그것은 개인이 ‘장’이라는 사회의 다양한 제도적 영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자산’이다. 예컨대 사회에는 경제적 장·정치적 장·문화적 장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장에는 고유한 형태의 자본, 즉 경제적 자본·정치적 자본·문화적 자본 등이 존재한다.

4) 원래 Bourdieu 자신은 ‘문화자본’의 정의를 명확히 내린 바 없고, 여러 편의 글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씀으로써 때로는 형태와 기능이 불일치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좀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Lamont과 Lareau는 문화자본을 “사회적·문화적 배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문화적 신호(high status cultural signals)로서 제도화되고 널리 공유되어 있는 것(태도, 기호, 공적인 지식정보, 행동, 사물, 증명서)”이라고 다시 정의한 바 있다(Lamont and Lareau, 1988: 156).

결국 핵심은, 부모의 계급적 배경이 학생의 여러 층위의 성향과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2) 상대적 위험회피 : 사회 내 하향이동에 대한 두려움의 발현

통상적으로 학력과 계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르디외 식의 문화자본론이나, 상대적 위험회피론 중 하나의 맥락에서 그 불평등을 진단한다. 서구의 경우 교육 불평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근래들어 합리적 선택에 기반한 설명들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결정의 비용과 이득이 사회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은 통설처럼 여겨지는 교육불평등에 대한 문화와 규범에 기반하는 이론들(Bourdieu, 1984; Bourdieu and Passeron, 1990[1977])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주목하는 이론으로는 브린과 골드소프(Breen and Goldthorpe, 1997; Goldthorpe, 1996a; Goldthorpe, 1996b)의 상대적 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 메커니즘을 꼽을 수 있다.

부동(Boudon, 1974)은 교육불평등을 계급 간 학업성취도 차이인 일차 효과(primary effect)와 계급 간 교육선택의 차이인 이차 효과(secondary effect)로 나누어 설명한다. 일차 효과의 경우 가족의 배경에 따라 생성된 학업 성취 능력의 차이를 보고, 이차 효과는 교육 과정의 주요 전환점에서 젊은이들과 그들의 부모가 취하는 선택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중요한 점은, 성취 혹은 일차 효과에 있어서의 계급 간 차이가 이차 효과를 결정짓지 않고, 이차 효과가 독립적인 경로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연구들이 학생들의 능력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출신 배경이 좋을수록, 혹은 좀 더 높은 계급의 아이일수록 더 장기적이고 더 학구적인 과정에 참여할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인바 있다(Goldthorpe, 1996b: 496).

상기 주장을 바탕으로 브린과 골드소프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상대적 위험회피 기제는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목표가 사회 속에서의 하향 이동을 회피하는 것이고, 개인들은 그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들인다고 본다. 결국, 더 높은 계급의 아이들이 유사한 재능을 지닌 더 낮은 계급의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교육 시스템에 머문다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상대적 위험회피 이론은 사회 내 하향 이동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의 계급 간 차이를 살펴본다. 이런 이론적 접근방식은 2000년대 초중반 서구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뒷받침했다(Becker 2003; Breen and Yaish, 2006; Davies, Heinsen and Holm, 2002; Need and De Jong, 2000; Smyth, 1999; Van de Werfhorst, 2002; Van de Werfhorst and Andersen, 2005).

한국 상황에 이 이론을 적용한 논문으로는 사교육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

지 지원할 수 있으나, 부모나 아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가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검토한 김위정·염유식(2009)의 연구가 있고, 대학진학에 대해 가정 배경이 지닌 누적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김양분·김위정, 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수능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합리적 행위이론의 맥락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자원의 차이로 해석한다. 즉, 동일한 성적이라면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계층이 보다 좋은 학교로의 진학을 선택하고 그를 실행에 옮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다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고, 비용보다 잠재적 수익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이들은 대체로 높은 계급의 구성원들이고, 대체로 분화된 교육장 중 주류화된 장의 게임의 법칙과 가장 친화적인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학력을 통한 불평등의 재생산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위험회피의 메커니즘이 지니는 설명력은 가족주의와도 연관이 된다. 자신의 자식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살아가기를, 자신보다 더 높은 계급의 구성원으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의 부모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합리적 선택이론 기반의 연구는 유사 분야의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 행동의 합리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상대적 위험회피(relative risk aversion)의 메커니즘은 분명 상식적으로만 봐도 한국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지닌 의미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교육장이 분화됨에 따라 그 교육에 대한 개인들 혹은 집단 간의 열망 차이를 미비한 것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 즉, 자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자원과 각 장 간의 친화성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 위험회피론의 경우 역사와 현재를 이분해 대비시키고,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전적으로 후자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맥락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몰역사적인 분석은 아무리 엄밀하고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깊이 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형성된 계급친화적인 맥락에 대한 진단을 어렵게 만든다. 비록 그 연구들이 계급의 형성을 보다 실제적인 집합적 행위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의도를 지녔다(Erikson and Goldthorpe, 1992: 226)고 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 내 하향 이동에 대한 두려움은 계급과 무관하지만, 그 하향 이동을 막는 일에 있어서 고등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인식은 계급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역사성, 이 경우에는 개인의 생애과정이라는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학력주의와 행위자 : 생애과정 특정 국면에서의 시공간과 경험

상기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학력주의 성향을 사회 내 하향이동을 피하기 위해 대학교육이 지니는 중요성으로 정의한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학 학력의 중요성을 가장 크게 체

감하는 시기는 자신과 가족의 노력이 쏟아져 들어가는 고등학교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매년 11월 치러지는 수능에 대한 강조는 고등학교 시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 학입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게 해준다.

행위자는 오롯이 구조의 산물도 아니고, 진공상태 속에서 스스로의 합리성에 입각해 살아가지 도 않는다. 결국 개인 행위자가 어떤 맥락 하에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생애과정을 구성해나가는지를 봐야 한다. 행위자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심리학적 연구들에서는 맥락적 요인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원칙은 생애과정과 인간 발달에 관한 이론은 인간 행위자에 대한 구성 주의적 시각을 포함해야 한다. 구성주의적 시각은 연령 범주에 따른 생애과정과 개개인이 살아내 는 삶 간의 느슨한 연결고리로 작동한다. 사회수준에서 특정 연령대에 요구하는 규범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생애과정에서 행위자는 요구되는 경계에 부합하 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서 벗어나는 행동 또한 할 수 있다(Elder and Johnson, 2002). 결국 생애의 특정 국면, 본 연구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행위자들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지 배적인 담론과 어떻게 관계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계급 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학생 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통해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에 대한 검증은 시도한다. 부모의 계급 변수들만을 넣었 을 때와 학생의 요인까지 포함시켰을 때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기존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속변수가 성취도와 교육 포부인데, 학력 주의의 경향은 이들 모두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사회라는 맥락에서 청소년기, 특히 고등학교를 다닐 시기의 청소년들은 전에 없이 학력주의적 가치관에 노출된다. 이러 한 환경 요인은 계급이나 고등학교의 종류와 무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급에 따라 학력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에 차이가 나겠지만, 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연구가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부모의 계급 위치(교육, 직업)가 낮은 집단은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 가설 2. 부모의 교육기대가 낮은 집단은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 가설 3. 스스로의 교육기대가 낮은 집단은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 가설 4.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5. 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은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6. 보다 치밀하게 양육된, 부모와의 애착이 큰 집단은 더 높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7. 학력주의 성향의 집단 간 초기 차이는 더 낮은 성향을 보인 집단에서의 변화가 더 가파르게 나타남에 따라 줄어들 것이다.

III. 자료와 연구방법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자료를 이용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과 학교의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하여 3499명을 추출했다. 현재 2008년도 6차년도 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71.3%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은 해당학생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직업과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에 진학한 시점까지의 자료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급에 따른 학력주의 성향의 초기 차이와 그 변화궤적을 분석하는 종단연구에 적절하다.

〈표 1〉 한국청소년패널

	중2	중3	고1	고2	고3	+1
2003(1년차)	P1					
2004(2년차)		P1				
2005(3년차)			P1			
2006(4년차)				P1		
2007(5년차)					P1	
2008(6년차)						P1

2. 척도 및 변수의 구성

〈표 2〉 사용된 변수의 구성

변수명	변수설명	비고
학력주의 (w3-w6)	(w3) Cronbach a: .809 (w4) Cronbach a: .802 (w5) Cronbach a: .830 (w6) Cronbach a: .806	
교육기대	(w1) 희망교육수준 (학생, 부모)	더미변수 0: 대학원 미만 1: 대학원 이상
부모교육수준	(w1)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	더미변수 0: 대학교 이상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부모직업	(w1) 2000 표준직업분류: 대분류	더미변수 0: 숙련노동직, 비숙련노동직 1: 숙력사무직, 비숙련사무직
부모와의 애착	(w2) Cronbach a: .873	
고등학교 유형	(w3) 특수고, 일반고, 전문고, 예체능	더미변수 0: 특수고, 일반고 1: 전문고, 예체능
고등학교 지역	(w3)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울산, 제주, 대구, 경북, 국외	더미변수 0: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1: 기타
학업성적	(w1-w2) 전교 등수 / 전교 학생수	더미변수 0: 상위 50% 1: 하위 50%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w1) Cronbach a: .569	

〈표 3〉 부모 직업 변수 분류

부모 직업 변수 분류	
숙련사무직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전문가 2: 기술공 및 준전문가
비숙련사무직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숙련노동직	6: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숙련노동직	9: 단순노무 종사자

〈표 4〉 학력주의 (Credentialism) 변수 구성

학력주의 (Credentialism)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상급학교 진학은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중학교 중퇴나 졸업의 학력으로는 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 중퇴나 졸업의 학력으로는 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다	

〈표 5〉 부모와의 애착 (Kinship/Concerted Cultivation) 변수 구성

치밀한 양육 (Concerted Cultivation)	
학생의 집에서는 학생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1: 전혀 하지 않는다 2: 별로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많이 하는 편이다 5: 매우 많이 한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표 6〉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Uncertainty) 변수 구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는 아직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나는 아직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직업의 종류, 성격 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나는 현재, 직업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나는 현재, 내가 갖고 싶은 장래 직업이 자주 바뀐다	
나는 현재, 장래 직업선택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란 어차피 불확실한 것이므로 직업을 미리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활용한다. 잠재성장곡선 모형의 접근은 개인 성향 내 변화의 궤적에 대한 관심을 핵심으로 각 개인 내에서의 시점별 관측치를 통해 변화의 궤적을 추정하고, 이 변화궤적의 개인/집단 간 변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존재한다면 어떤 변인들로 인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김진영, 2008). 해당되는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존재하는 무응답 자료(missing data)에 대해서는 AMOS 20.0이 제공하는 보정(imputation) 방법을 사용해서 전체 3499명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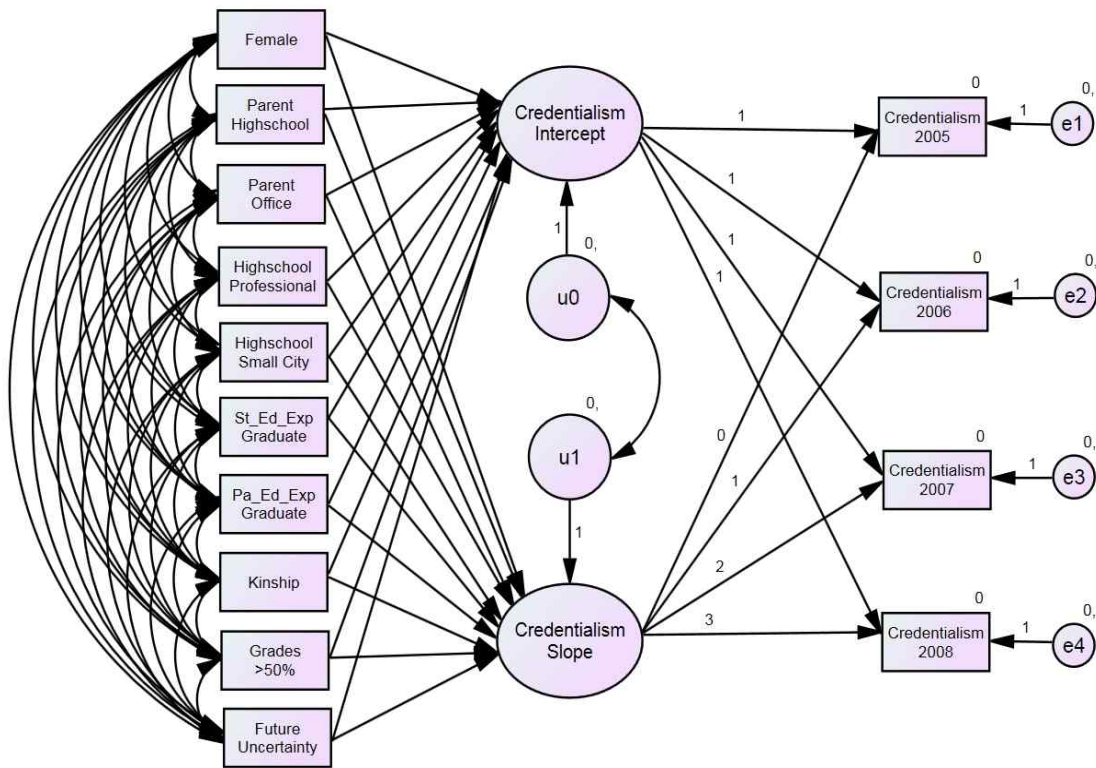
IV. 결과분석

1. 학력주의 성향의 잠재성장곡선 모형

[그림 1]은 기존 교육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 변수들과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잠재성장곡선 모형으로, 청소년패널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자료가 사용된다.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율(Credentialism Slope)에 대한 각 해당년도의 학력주의 성향으로

의 요인 부하(factor loading)이 0, 1, 2, 3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모형이 5차년도(2007)까지는 학력주의 성향의 선형적 변화를 가정하고 그 이후의 6차년도(2008)에는 그 궤적이 상이해짐을 가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간의 패널 자료의 경우 선형적 성장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이러한 가정이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보다 간결한 모형이 갖는 장점들이 크기 때문이다” (김진영, 2008: 177). 그림 맨 오른편의 “e1” 에서 “e4” 까지는 측정오차를 의미한다.

[그림 1] 학력주의 성향의 궤적에 대한 잠재성장곡선 모형 (청소년패널 1차년도부터 6차년도 자료 이용)



또한, [그림 1]의 왼편을 보면 외생(exogenous) 변수들이 집단 간 초기 학력주의 성향의 수준과 변화율(기울기)에서의 변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급적 위치가 높은 이들의 자식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성향을 체화해 결과로 어느 정도 나타낸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와 변화궤적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생변수들이 더미변수로 사용됐다.

〈표 7〉은 [그림 1]의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추정한 결과다. 모델 1과 2는 각각 부모 배경 변수를 통한 추정과 거기에 학생 개인 변수를 포함시킨 추정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소재지의 경우 부

모가 어느 지역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부모 배경변인으로 간주했고, 진학한 고등학교 유형의 경우 학생 개인의 성취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 개인 변인에 포함시켰다. 표 하단을 보면 각 모델의 적합도 지수(fit index)가 명시되어 있는데, 모델 2의 경우 주요 지수인 CFI와 RMSE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만 모델 1은 그 경계에 걸쳐져있는 수준이다. 학생 변인을 포함시킨 모델의 적합도가 더 높았기에 결과의 해석에서는 모델 2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표 7〉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와 변화궤적의 추정

예측변수	Model 1		Model 2	
	Constant	Change	Constant	Change
여성	.039 [.027]	-.007 [.011]	-.013 [.026]	.003 [.011]
부모교육수준 (고졸이하)	-.285*** [.028]	.028* [.011]	-.172*** [.027]	.009 [.011]
부모직업 (사무직)	.039* [.015]	-.009 [.006]	.018 [.014]	-.006 [.006]
고등학교 소재지 [비(非) 대도시]	-.115*** [.028]	.008 [.011]	-.113*** [.027]	.006 [.011]
부모의 교육기대 (대학원)	.237*** [.034]	-.020 [.014]	.062 [.039]	.007 [.016]
학생의 교육기대 (대학원)			.224*** [.043]	-.034* [.018]
고등학교 종류 (전문계/실업계)			-.366*** [.034]	.055*** [.014]
부모와의 애착			.113*** [.019]	-.022** [.008]
미래 불확실함			.063** [.019]	-.012 [.008]
성적 (하위 50%)			-.166*** [.029]	.028* [.012]
Intercept	3.549*** [.036]	.028* [.014]	3.139*** [.090]	.113** [.037]
Residual Variance	.358*** [.016]	.024*** [.003]	.301*** [.015]	.022*** [.003]
Residual Correlation	-.603		-.564	
Fit Indexes	x ² =258.405, df=15, p<.001 CFI=.928, RMSEA=.061		x ² =208.865, df=25, p<.001 CFI=.970, RMSEA=.041	

*** p<.001, **p<.01, *p<.05

2. 학력주의 성향의 계급 및 집단 별 차이

학력주의 성향의 초기 수치의 경우 성별, 부모의 직업, 그리고 부모의 교육기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점은 부모직업과 부모의 교육기대의 경우 학생 개인 변인들을 포함시키기 전에는 유의미했지만 포함시킬 경우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는 이들 두 변인(각 .039*에서 .018, .237***에서 .062)이 지니는 효과가 학력주의 성향의 수준에 끼치는 영향이 학생 개인 수준의 변인들을 통한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교육수준의 경우 변화궤적에 유의미한 영향(.028)을 끼쳤지만 학생 개인 변인들이 포함될 경우 그 설명력을 상실했다(.009).

부모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학생들은 그 이상의 학력을 지닌 부모의 자식들보다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였다(-.172). 고등학교 소재지가 비(非)대도시일 경우 마찬가지로 학력주의 성향이 더 낮았다(-.113). 학생이 대학원까지 수학할 것을 기대한 경우(.224), 부모와의 애착이 클 경우(.113)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낄 경우(.063) 학력주의 성향은 더 높았고, 전문계/실업계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366)과 성적이 하위 50%에 속하는 학생들(-.166)이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는 학력주의 성향의 초기 차이에 대한 가설을 부모의 교육기대에 대한 가설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하는 결과다. 부모의 계급과 그로 인한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열망과 같은 기존 교육불평등 연구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들은 학력주의 성향 또한 설명해낸다.

3.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

본 연구는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궤적을 검토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초기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가 집단 별로 어떤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지를 검토한 결과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가 수렴한다는 가설 7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변화궤적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들은 학생의 교육기대(-.034), 고등학교 유형(.055), 부모와의 애착(-.022), 그리고 성적(.028) 이었다.

우선 학생의 교육기대의 경우 대학원 이상 수학하고자 하는 포부를 지녔던 학생들의 초기 학력주의 성향이 더 높았지만, 그들의 경우 학력주의 성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기대가 대학원 이상이었던 이들과 그 이하였던 이들 간의 유의미한 초기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는 고등학교 시기를 거침에 따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들의 경우 인문계 및 특수고에 진학한 이들보다 더 낮은 초기 학력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고등학교 시기 동안 그 증가폭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역시 학력주의 성향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모와의 애착이 더 높았던 집단의 경우

또한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 시절 성적이 하위 50%에 속한 이들은 더 낮은 초기 학력주의 성향을 보였지만 그 증가폭은 상위 50%에 속한 학생들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수준과 고등학교 소재지의 경우 초기에 더 낮은 학력주의 성향을 보인 집단의 경우 그 변화량이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아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기에 가설 7은 부분적으로 지지됐다.

표 하단의 잔차 분산(residual variance) 값은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에 의해 설명되고 남은 잠재요인에서의 변이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두 모델 모두에서 초기 학력주의 성향의 집단 간 변이는 모델에 포함된 외생변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V. 결론 및 토론

당대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학력주의는 단순히 시대적 배경으로, 항시 존재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서는 안된다. 개인, 집단 그리고 계급에 따라 사회 내 하향이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계급적 배경은 모두 유의미한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를 설명해냈다. 단, 부모의 직업과 교육기대의 경우 학생 관련 변인들이 모델에 추가됐을 때 설명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두 변인이 학력주의 성향에 끼치는 영향은 학생 개인의 요소들의 발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학생 모두의 변수를 포함한 모델에서는 보다 대학입시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일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와의 애착이 크면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에 있는 비(非)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스스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학력주의 성향이 관찰됐다. 자신이 해당 이념이 요구하는 바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를 더 옹호하는 성향을 띠는 것은 상식수준에서도 쉬이 이해할 수 있다. 단, 그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계적은 해당 관념이 개별 행위자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초기 학력주의 성향이 낮았던 집단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그 초기 수치가 높았던 집단 보다 더 가파른 증가의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변화량에 있어서 유의미함을 보인 것이 학생 개인 수준의 변수들뿐이라는 점이다. 고등학교시기에 진입할 때 계급 및 여타 배경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학력주의 성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수렴해나갔다. 한국사회에서는 고등학교시기를 거침에 따라 체화하게 되는 적정 수준의 학력주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학력주의 성향은 재생산되지는 않는 것일까? 교육과 개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보다 좋은 대학이나 교육과정이 지닌 이점들을 몸소 체험함에 따라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각 집단별로 어떤 변화의 궤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학력주의가 개개인의 생애를 거치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작동하는 지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된다. 비로소, 구조 수준에서 개인 행위자를 제약하고 고통 받게 한다는 한국사회 학력주의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준만. 2009. 『입시전쟁 잔혹사』. 인물과 사상사.
- 김병관. 1999. “기회구조, 사회 이동, 그리고 개인적 성취: 구조와 행위의 동적 전개.” 김일철 편. 한국의 사회구조와 지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173-197.
- 김영화·김병관. 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연구』 37: 155-172.
- 김양분·김위정.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 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3-302.
- 김용일. 2010. 『교육의 계급화를 넘어』. 북이데아.
- 김위정·염유식. 2009. “계급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3(5): 30-61.
- 김진영. 2008.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이용한 교육과 건강의 궤적 간 관계 분석.” 『한국사회학』 42(2): 164-190.
- 김현주·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방하남·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35(3): 1-30.
- _____.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_____. 2003. “한국 사회의 교육계층화: 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37(4): 31-65.
- 윤종희·박상현 외. 2005. 『대중교육: 역사·이론·쟁점』. 도서출판 공감.
- 이광호. 1994. “근대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I): 학력주의의 발생적 기원과 형태를 중심(1895-1910)으로.” 『정신문화연구』 17(3): 151-183.
- 이용관. 2010. “교육복지에서 멀어지는 한국 교육.” 『월간 복지동향』 135: 19-23.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상수.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가을): 671-708.
- _____.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정상근. 2011. 『대한민국 청춘의 생태 복원을 위한 보고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청춘이다』. 시대의창.
- 조돈문. 2005. “한국 사회의 계급과 문화.” 『한국사회학』 39(2): 1-33.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 123-158.
- 황여정. 2008.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지각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청소년 연구』 19(3): 85-114.
- Aschaffenburg, Karen and Ineke Maas. 1997. “Cultural and Educational Careers: The Dynamics of Soci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4): 573-87.
- Barone, Carlo. 2006. “Cultural Capital, Ambition and the Explanation of Inequalities in Learning Outcomes: A Comparative Analysis.” *Sociology* 40(6): 1039-58.
- Becker, Rolf. 2003. “Educational Expansion and Persistent Inequalities of Education- Utilizing Subjective Expected Utility Theory to Explain Increasing Participation Rates in Upper Secondary School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1): 1-24.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ourdieu, Pierre and Jean-Claude Passeron. 1990[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Boudon, Raymond. 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New York: Wiley.
- Breen, Richard and John H. Goldthorpe. 1997.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 Society* 9(3): 275-305.

- Breen, Richard and Meir Yaish. 2006. "Testing the Breen-Goldthorpe Model of Educational Decision Making" in S. L. Morgan, D. B. Grusky and G. S. Fields (eds) *Mobility and Inequality: Frontiers of Research in Sociology and Economic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vies, Richard, Eskil Heinesen and Anders Holm. 2002. "The Relative Risk Aversion Hypothesis of Educational Choic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83-713.
- De Graff, Nan Dirk, Paul De Graaf and Gerbert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iMaggio, Paul.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Elder Jr., Glen H. and Monica K. Johnson. 2002. "The Life Course and Aging: Challenges, Lessons, and New Directions." in *Invitation to the Life Course: Toward New Understandings of Later Life*, Richard A. Settersten (ed.)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 pp. 49-81.
- Erikson, Robert and John H. Goldthorpe.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Goldthorpe, John, H. 1992. "Employment, Class and Mobility: A Critique of Liberal and Marxist Theories of Long-Term Social Change" in *Social Change and Modernity*, edited by H. Haferkamp and N. J. Smels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6a. "Class and Politics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in *Conflicts over Class*, edited by D. J. Lee and B. S. Turner. London: Longmans.
- _____. 1996b. "Class Analysis and the Reorientation of Class Theory: The Case of Persisting Differentials in Educational Attain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3): 481-505.
- Harris, David. 1992. *From Class Struggle to the Politics of Pleasure: The Effects of Gramscianism on Cultural Studies*. London, UK: Routledge.
- Jenkins, Richard. 1992. *Pierre Bourdieu*. London, UK: Routledge.
- Kim, Andrew Ho. 2013. "Persisting Educat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Changes in the Meaning of College Education and Differentiated Educational Field." *Episteme* 10: 257-284.
- Lamont, Michele and Annette Lareau.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6(2): 153-168.
- Mannheim, Karl. 1929. *Ideologie und Utopie* (임석진 역, 2012.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김영

사).

- McLellan, David. 1995. *Ideology* (구승희 역. 2002. 『이데올로기』. 이후).
- Need, Ariana and Uulkje De Jong. 2000. "Educational Differentials in the Netherlands: Testing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ity & Society* 13(1): 71-98.
- Sewell, William, Archibald Haller and George Ohlendorf. 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Status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1014-1027.
- Sewell, William, Archibald Haller and Alejandro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2.
- Sewell, William and Robert Hauser. 1972. "Causes and Consequences of Higher Education: Models of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4: 851-861.
- Smyth, Emer. 1999. "Educational Inequalities among School Leavers in Ireland 1979-1994." *Economic and Social Review* 30(3): 267-84.
- Sullivan, Alice. 2001.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y* 35(4): 893-912.
- Van de Werfhorst, Herman G. 2002. "A Detailed Examination of the Role of Education in Intergenerational Social Class Mobility." *Social Science Information* 41(3): 407-38.
- Van de Werfhorst, Herman G. and Robert Andersen. 2005. "Social Background, Credential Inflation and Educational Strategies." *Acta Sociologica* 48(4): 321-40.

「학력주의 성향의 변화계적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남윤철 /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수료

다양한 연구들에서 사회적 사실로 간주되는 학력주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특히 학력주의를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다룸으로써 그 사회에서의 실제 양상을 검증하는 좋은 연구로 보인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 개선된 생애과정접근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학생들이 학령기를 보내는 동안 학력주의 성향이 보이는 궤적과 그 복합적인 설명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변수설정 과정에서 부모/학생중심의 변인들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등 잠재성장모형을 잘 활용하고 있으며, 종단연구를 통해 '학령기' 동안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부분도 연구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몇몇 부분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연구 성과들이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비록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내용일 수 있지만 논의의 전개가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서 교육이 계급재생산 기제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근거 혹은 선행연구에 대한 인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 중의 하나로서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의에 인용된 문헌들을 적시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된 주제가 되는 학력주의 성향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요한 접근들의 강점을 수용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애과정접근을 도입하는 것은 이 연구의 강점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문화자본에 기초한 접근과 상대적 위험회피에 기초한 접근의 설명력을 향상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애과정을 고려한 접근을 도입하는 부분(발표문 본문, p. 75)과 학력주의의 정의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선행연구 검토를 포함한 논문의 이론적인 논의, 그리고 변수설정과 분석을 통해서 연구주제로서 학력주의와 학력주의 성향을 잘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학력주의의 정의 그리고 거기에 기초한 학력주의 성향을 정의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저자의 주제의식의 연관을 통해 도달하는 과정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력주의 성향을 “사회 내 하향이동을 피하기 위해 대학

교육이 지니는 중요성(발표문 본문, p. 76)”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학력주의적인 성향이라면 ‘중요성’이라기 보다 오히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쪽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 역시 이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변수설정이나 가설, 연구전반에 걸쳐 후자에 가까운 정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론적인 검토,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부터 가설설정으로 이어지는 부분 역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총 7가지로 설정된 각각의 가설들은 기정리된 문화자본과 상대적 위험회피를 비롯한 선행연구들과 연결을 가진다. 하지만 그 연결은 주로 간접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각각의 가설이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간적 경험을 중시하는 생애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적인 보완과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잠재성장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설정에 있어 보다 긴밀한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모형을 사용한 결과추정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배경변인과 학생개인변인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다(발표문 본문, p. 82). 분과학문 내부에서 ‘기합의’ 된 내용일 수 있지만, 소재지와 고등학교 유형을 각각 해당하는 ‘변인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적시한다면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력주의 성향의 차이가 줄어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금 더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에서 어떠한 상관관계의 확인과 추이의 확인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상관관계/추이를 설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역시 ‘차이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언급하고 있다. 분석과 결론 부분에서 연구가 발견한 사실들을 보다 선명하게 노출하고 전반부에 구성한 이론적인 기초위에서 분석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연구성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